

12일 Market Index			
코스피	4150.39	코스닥	906.51
	(+44.00)		(+22.24)
금리 (미국 9년)	2.923	환율 (원·달러)	1466.40
	(+0.092)		(+3.10)

“인식에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AI’ 경쟁 본격화

산업 프레임 바꿀 피지컬AI

〈上〉AI의 또 다른 진화

로봇·자율주행·물류 혁신 집중
정부 10조 투자, 제조업 결합 가속
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선언
네이버·서울대 신기술 실험 박차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Physical) AI’가 주목 받으면서 정부에서부터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 서울대학교 등 학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AI를 물리적 세계에 직접 적용해 ‘인식→이해→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율 시스템을 뜻한다. 일반 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디지털 입력력에 의존하는 반면, 피지컬 AI는 카메라·센서·액추에이터 등을 통해 실제 물리 환경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거나 작업을 수행한다.

피지컬AI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자율주행차·스마트물류 등 현실 공간을 변화하려면 ‘소프트웨어(SW) 차원’의 AI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최근 “AI 기술은 이제 소프트웨어 수준을 넘어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피지컬AI가 AI 시대 차세대 기술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이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규모 예산 투입에 나섰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하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보한 엔비디아 GPU 26만장에 더해 정부도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 총 3만5000장을 조기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외 우수한 제조 역량을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내 IT 기업들도 피지컬 AI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사상 첫 분기 매출 3조원을 돌파한 네이버는 피지컬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5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사 피지컬 AI 기술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자부한다”며,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의 약 39%를 차지하는 운영체제(OS)·제어플랫폼 부문에서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내년 GPU에만 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심 기술은 로봇 클라우드 ‘아크(ARC)’와 초정밀 3D 디지털트윈 ‘얼라이크(ALIKE)’다.

최 대표는 “‘아크’는 다양한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표준 OS 플랫폼으로, 로봇계의 ‘윈도’나 ‘안드로이드’ 역할을 지향한다”며 “이 기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지컬 AI 혁신을 뒷받침할 학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대는 차세대 AI 인재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대 로보틱스 연구소(SNU RI)’를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SNU RI는 박종우 교수(전 IEEE 로봇자동화학회장), 조규진 교수(차기 IEEE 로봇자동화학회장) 등 글로벌 로봇 학계의 석학들이 주축이 된다.

가장 큰 목표는 해외로 유출되는 우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실시된 12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찾은 수험생들이 이화여고 1,2학년 학생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뉴스1

수 인재를 붙잡는 것이다. 조 교수는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기술 실증 혹은 사업화 성과를 내는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NU RI는 학계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AI 스타트업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창업을 돕는 ‘개방형 허브’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비서관은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산업환경 외에 물리세계인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제조공장과 소프트웨어능력을 모두 갖춰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생산 넘어 기술까지 심는다 삼성·LG, 인도 투자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현지 공장·개발인력 확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전자기업들이 인도 시장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현지 제품 개발 역량까지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미국·중국 간 통상 리스크 변화 대응에도 한창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가전시장 규모는 올해 512억달러(한화 약 71조 68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663억달러(한화 약 92조 82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인도 첸나이 가전 공장에 17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에도 신공장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을 냉장고 360만대, 세탁기 375만대, 에어컨 470만대, TV 200만대 등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폴더블폰 등 신제품 판매 호조로 인도 시장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상반기 7만루피(한화 약 110만원) 이상 인도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9%로 애플(48%)을 제쳤다고 최근 전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에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인도에서 제조되는 애플의 아이폰17을 위한 자동화 제조 공정 장비를 개발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유력 경제매체 이코노미타임스의 지난5일 보도에 따르면 LG생산기술원은 폭스콘, 타타 이렉트로닉스, 페가트론 등 애플 생산파트너가 운영하는 생산 공정에 직접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 특히 LG전자의 핵심 고객사인 애플이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점은 회사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 왔으나 올 2분기부터 인도 생산 비중을 확대하며 미국의 관세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도는 제조 측면에서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함에도 많은 인구와 높은 소비력 등 성장 지표가 뚜렷해 국내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당분간은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늘면 보험료 인상

지난해 소득·재산 기준 새로 산정
감소 땀 감액신청 가능·차액 정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재산이 재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이달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한다. 매년 11월이면 1년간 납부할 건보료가 다시 산출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새로 산정하게 된다. 이는 매월 임금을 기준으로 매기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체계

와 다르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국세청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10월까지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되는 것. 여기에 올해 6월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문제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다. 올해 소득이 크게 감소했어도 작년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 정산제도’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낸다. 이후 실제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 ▲우 의장, 인니 하원의장 만나 “의회 간 협력 중요… 친선 지원” /사진 뉴시스
- ▲예결위서 ‘항소 포기’ 공방… 여 “정치검찰 걸러내야” 야 “국고 7400억 날려”

- ▲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1조2000억 수익 나면 4500억원 민간 몫”
- ▲정청래 “울지루위와 더 나은 상생협력 사회 만드는 데 최선”

- ▲조국, 의정부 민생현장서 첫 선거운동… “소상공인 숨통 틔울 대책 필요”
- ▲농해수위 당정협의… “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처리 추진”

청년층 고용률 18개월 째 내리막... 30대 ‘그냥 쉬었음’ 최다

국가데이터처, 10월 고용동향

취업자수 전년비 19.3만명 늘어
보건업·예술스포츠 서비스 등 ↑
농림어업·건설업 등 취업자 줄어

60세 이상·30대 취업자 증가하고
20대·40대·50대는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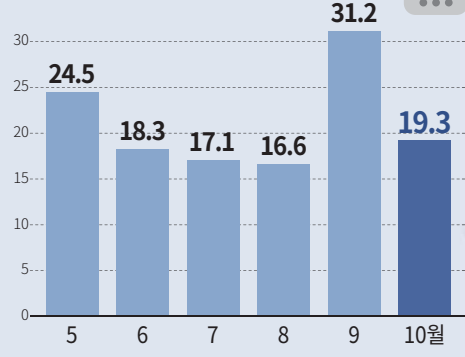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청년층 고용률이 18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또 30대 연령층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대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도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 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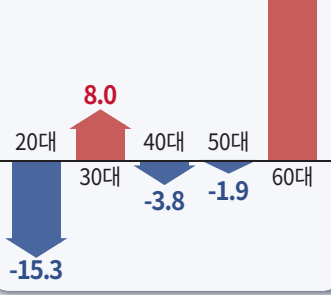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단위: 만 명



자료/국가데이터처

연령별 증감

10월 기준, 단위: 만 명



그래픽/정민주 기자

비스업(7만 명), 도매및소매업(4만6000명), 교육서비스업(1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12만4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제조업(-5만1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건설업은 18개월, 제조업은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60세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5만3000명), 40대(-3만8000명), 50대(-1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0월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지난 1982년 월간 고용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10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6%로 1.0%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18개월 연속 내리막길인데, 이는 20대 취업자 감소가 15만 명대에 이르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간 정부 관계자 등은 20대의 경우 인구 급감이 고용 부진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취업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적 위주의 채용,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많이 가는 산업인 제조업이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12만1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만8000명 늘었다. 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미루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258만명으로 13만5000명 늘었다.

특히 30대에서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을 기록하며 200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공미숙 국장은 “30대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가사부분이 줄고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월 임금근로자 수는 224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1000명(1.4%)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7만9000명(1.6%)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5000명(6.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55만2000명으로 11만8000명(-1.8%)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9000명(1.3%)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7000명(-2.7%)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무안군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제5회 YOUNG DREAM 페스티벌

2025. 11.14.(금)~11.16.(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중앙공원 일원

“생산적 금융 508조 투입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뒤쳐지면 안돼
생산성·부가가치 상승기회 열어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스템화 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5대금융은 가계대출에 편중된 기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가 성장동력과 연계된 부분으로 자본을 배치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B 110조원 ▲신한금융 110조원 ▲농협금융 108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우리금융 80조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했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불편해 하는 규제는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로 인한 건전성 위축시 해결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혁신기업 대출처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자본 확충 부담 없이 일정 수준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법 같은 경우 핀테크 부분을 중심으로 몇가지 준비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 조정도(생산성 금융을) 진행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도겠다”고 말했다.

◆ 원화스테이블 코인, “흐름에 뒤처져선 안돼”

이날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KRW)의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국제적 흐름에 뒤쳐지면 안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각국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 수준을 통해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된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만큼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기회를 열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동박업계, ESS용 제품 비중 확대… 실적개선 속도 낸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성장세 정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돌파구 마련
ESS 분야 주목… 공급망 재편 나서

동박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으로 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중심이던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ESS 확산으로 향후 ESS용 동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생산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새로운 주력 분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이 ESS 사업을 본격 확대함에 따라 관련 동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ESS용 동박 출하량은 내년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익산공장 전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터터바나 전지박 공장 전경.

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내년 하반기 ESS 라인 가동 예정인 북미 OEM을 대상으로 ESS용 제품 승인을 진행 중이며 라인 가동 시점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주요 고객사의 대응량 ESS향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및 리튬인산철(LFP) 라인 전환이 본격화함에 따

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ESS 매출 비중이 내년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배터리용 동박(전지박) 생산라인을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맞춰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 중심에서 벗어나 비전기차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배터리 셀 제조사들의 전략과 유사

한 행보로 분석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주요 K배터리사에 ESS용 전지박 공급을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도 현지 주요 배터리업체와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을 공략하며 ESS 시장 확대에 맞춰 현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ESS 시장은 지난해

19.1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83GWh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유럽 내 공급망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KC도 ESS용 제품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SKC는 3분기 LFP 기반 ESS향 동박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급증한 1540톤을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ESS향 비중은 18%로 확대됐으며 4분기에는 캐나다향 신규 물량 출하로 ESS향 판매량이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ESS 시장 확대로 북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업단지와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업체들은 ESS 대응 제품을 확대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단기간 실적 개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DDX 사업, ‘상생안’ 급부상

(차기구조합)

방사청, 분과위에 KDDX 안전 상정 예정
업계, HD현대·한화오션 동시 참여 거론
전문가들 “2년째 표류, 결단 필요한 때”

2년째 표류 중인 7조8000억원 규모의 차기구조합(KDDX) 사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방식을 고수하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동시 건조 참여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14일 열리는 제132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상설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은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핵심이 될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오는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장기화한 업계내 갈등 속에 방사청은 올해 3·4·8·9월 분과위에서 수의계약 안전을 상정하려 했지만 민간위원 등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업계 안팎에서는 두 조선소가 함께 건조에 참여하는 상생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분과위에서도 두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연장 논란까지 겹치면서, 물량을 분담해 사업을 재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국내 최초 독자 설계 잠수함인 장보고-III급에서도 양사가 협업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 중인 점, 향후 핵추진잠수함 사업에서도 공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당초 사업 방식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가 논의됐다. 그러나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과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입장차가 커지며

사업이 표류했다. 한화오션은 보안감점을 근거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6조를 근거로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방위사업청은 수의계약 방식을 밀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상생 또는 경쟁입찰 전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수의계약 고집은 국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며 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렸다.

결국 논의의 무게중심은 상생안으로 옮겨갔지만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 영역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계약이 중복되면 일정·비용 조율도 복잡해진다. 기술 유출 위험과 관례 훼손 논란도 뒤따른다. 다만 방위사업관리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규로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임의 조항이라는 점에서 해석 차가 크다. 대기업 간 ‘상생’이라는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7일과 10일 열린 민간 분과위원 설명회에서는 방사청이 사실상 수의계약안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입찰안은 보안감점 연장으로 한화오션이 유리하다는 점, 상생안은 양사 간 합의 미도출과 담합 우려가 이유로 거론되며 구체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업 방식 선택이 아니라 장기 지연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승자독식으로 가면 한쪽으로 치우쳐 K-해방방산 생태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장보고-III도 공동설계를 했듯 협업은 가능하고,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2년 가까이 표류한 사업을 결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꼭 필요한 것들 하나로 담다!

한화생명 하나로H종신보험(무)

미래를 위한 대비부터 오늘을 지켜낼 여유까지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로 담은
하나로H종신보험이 당신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안심케어

가족우산

사망보장

평생보장

마음든든

간편가입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5-06622호 (2025-09-30 ~ 2026-09-29) 준법감시인 확인필 : CS 25-09-058

홈페이지 : www.hanwhalife.com 상담 번호 : 080.365.6363

IMA 인가 막판 변수… 미래에셋 질주, 한투·NH는 제동

〈종합투자계좌〉

심사 키워드, 자본보다 신뢰
IB 판도 재편 변수령 예고

미래에셋證, 자본·통제 모두 앞서
한국투자證, 신용등급 하락에 흔들
NH투자證, 미공개정보 조사 부담

팽팽하던 증권사의 종합투자계좌(IMA) '1호 사업자' 자리 경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순항하고 있는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이슈가 불거지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A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 뒤 9월에서야 IMA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NH투자증권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신규 종투사 IMA 발행어음 지정 관련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아마 이번달 내에 첫번째 지정사례가 나오



NH투자증권

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 IMA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면 8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하게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들 세 증권사가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신용등급 하락 및 내부 통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장 느긋한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1위의 자본력(자기자본 14조원)과 박현주 회장의 '모험자본' 철학을 내세워 '1호' 타이틀을



한국투자증권

자신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전체 자본의 약 20%를 모험자본에 배정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 감내형 포트폴리오'다. 글로벌 VC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험과 구조화 역량을 통해 미국·유럽·동남아 등 해외 투자 파이프라인도 갖췄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신용등급 하락과 내부 통제 이슈가 불거지며 이중 악재를 겪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장기 외화표시채권 등급을 'Baa3'로 하향했



미래에셋증권

다. 이번 등급 강등은 한국투자증권이 점진적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서 자금 조달 구조가 악화한 점이 주된 원인이다. 무디스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단기 자금을 장기 기업금융 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는 '자산-부채 미스매치'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치명적인 신용 리스크는 아니지만,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게 증권 업계의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이슈도 불거졌다. 잡음이 커지자 회사는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

(TF)'를 신설,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전사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NH투자증권도 내부 통제 리스크가 불거졌다. 최근 IB(기업금융) 담당 임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통제 혁신 TF'를 신설하고, 전사 리스크 점검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에 나섰다. IB부문에 거래 사전 승인 절차와 검증 프로세스를 새로 도입했고, 임직원 개인계좌 거래 로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확대했다. 아울러 준법감시·리스크 관리 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현장 통제력을 높였다.

대형 증권사들이 '1호 IMA 사업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IMA가 증권사의 성장을 이끌 미래 먹거리로 꼽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IMA를 통해 수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으로 향하던 고객 발길을 끌어올 수 있다. IMA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발행어음과 달리 중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 운용 유연성도 높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노후 기대’ 달라졌지만… 고령층 절반 여전히 ‘생계형 노동’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단순한 장수보다 ‘즐거는 노후’ 선호
공적연금으로 생계비 충족 어려워
정년 뒤에도 절반 이상 경제활동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여행·취미 활동을 즐기며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기대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했고, 이미 은퇴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한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세대마다 다른 ‘노후생활’ 기대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42.4%는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중복응답 없음)으로 '취미활동'을 꼽았다. 여행 및 관광은 28.5%로 뒤를 이었고, 학습 및 자기개발 활동은 5.6%를 기록했다. 노후에도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도 14.3%에 달했다.

관련 조사에 '여행 및 관광' 응답이 최초로 포함된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가생활에 대한 기대는 78.8%(취미활동·여행 및 관광·학습 및 자기개발 합계)에서 76.5%로 낮아졌으며, 소득 창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11.9%에서 14.3%로 늘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59세의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13.7%에서 17.6%로 크게 늘었다.

두 번의 조사 모두 청년 세대(19~39세)는 이후 세대보다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고, 경제활동 지속에 대한 의사는 낮았다. 반면, 은퇴가 가까워진 중장년 세대(40~59세)에서는 은퇴 세대(60세 이상)보다도 여가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답변은 은퇴 이후 세대보다도 높았다.

65세 이상 세대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해질 경우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4.2%(복수응답 허용)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세대의 응답치인 39.6%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65세 이상 세대는 그 대신 식료품·경조사·의료·의료 등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이

겠다고 응답했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세대에서 '즐거운 노후'에 대한 의지도 분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 ‘노후준비’ 부족…은퇴해도 경제활동 지속

은퇴 이후 세대에서는 여유로운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와 의지 모두 높았지만, 실제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세대 응답자 가운데 80% 이상(40~49세 81.2%·50~59세 83.8%)은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2023년 63세 이상 연금수득자의 월 평균 연금소득을 80만원 전후로 집계했는데, 이는

같은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데이터처청은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49.4%로 집계했다. 법적 정년(60세) 이후에도 과반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84.4%(생활비 마련 77.9%·용돈 마련 6.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적 연금 제도가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만큼, 고령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홀딩스, 1.1조 리튬 투자… 호주·남미 자원 동시 확보

리튬광산·염호 동시 확보
전기차 약 86만대분 물량
원료 자립·밸류체인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 1000억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의 대표 광산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새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총투자금액 약 7억 6500만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들여 인수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미

네랄 리소스가 서호주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톱티어 리튬 광산인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마리온 광산'으로부터 연간 27만톤의 리튬 정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두 광산의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반영한 수치로 수산화리튬 3만 7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전기차 약 86만대에 들어가는 분량이다.

호주 리튬 광산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로 광산 경영 참여 및 배당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시장의 본격 성장기에는 리튬 정광 제련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사업 확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우량 염수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포스코

홀딩스는 6500만달러(약 950억원)를 투자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 인수를 결정했다.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주요 광권을 인수한 바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인접해 있는 이번 광권 인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高)품위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에서 추가 자원과 부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추진 중인 기존 리튬 사업과의 높은 시너지가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

“오늘 수능날, 전자기기는 두고 오세요”

수험표·신분증 미지참 시 입실 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으로, 올해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진행된다. 전자시계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표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 등이 인정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보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장 내 관리본부에서 오전 8시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내 반입이 불가하다.

/이현진 기자 lhj@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李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 간 협치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해쳐 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시스

野, 국회서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대회

장동혁 “몸통은李 대통령” 공세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규탄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며 말을 보탰다. 송 원내대표는 “더 이상 범죄자 주권 정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죄수익을 몽땅 자기들 배에 채우려고 하는 그 대장동 일파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모든 범죄수익을 다 토해내고,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 포기를 두고 ‘관련한 지시를 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이 12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공직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위축을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부터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포상 확대 ▲비효율적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공직문화 혁신 5대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날 브리핑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 개정과 관련해 “신중수사 대검 지시 이후 기소는 2건에 그쳤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권남용죄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복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수당은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대 6.6% 인상하기로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강 실장은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직비 예산이 연간 169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속직 다음 날 휴무도 없애지므로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새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강 실장은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

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5개 추진과제는 ▲트랙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공직 전문성 강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있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트랙 인사관리 체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순환보직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직 트랙을 신설하겠다”며 “계급 중심의 고착화된 조직 문화를 실효성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최고세율 25% 공감 속 野 “조건없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공방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감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법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것이다.

정부는 중간·분기·결산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대해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14%,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 여야, 최고세율 25% 인하 공감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에 최대 35%의 세율을 매기겠다고 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여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인 25%와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두고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대비 낮으나,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20~25%)보다 높아 개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25%에는 공감하지만, 조건 없는 분리과세를 해야 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0일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서 갖은 조건을 걸고 있고 최고세율도 35%, 배당성향도 따지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배당성향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두게 되면 해당되는 상황이 없어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과세 시 배당성향도 따질 필요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 세율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당도 최고세율을 25%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당이 내놓은 25% 안과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대, 최고세율 25% 의견 모아 대주주 대한 양도소득세에 맞춰

국민의힘 “배당성향 따져선 안 돼” 부자감세 논란 지속… “신중해야”

◆ 부자감세 논란은 지속

다만,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리과세 논의 초기에도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진 전 정책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감소보다 배당 활성화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를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1700억~1900억원 정도가 추가(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구 부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외국인은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한국은 주말이라... 해외 송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은행 상담 때마다 한국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

| 방송인 수잔 샤키야 |

15년 간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수잔 샤키야님은
오늘도 하나은행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HANA THE EASY 하나더이지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

외국인 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외국인 전용 맞춤 금융 / 간편 금융 / 다국어 금융 상담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오세철 “내년부터 모든 프로젝트에 AI에이전트 적용”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삼성물산 건설부문 ‘2025 AI 데이’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 3년내 전영역 AI중심 업무 지능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AI 네이티브’ 건설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업무 프로세스와 임직원의 의사결정이 AI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AI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오는 2028년까지는 전 영역에 AI 중심의 업무 지능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AI시대, 건설을 새로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2025 AI 데이(Day)’를 개최하고, AI 프로젝트의 성과와 글로벌 산업 동향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AI를 통한 전사 혁신 비전을 제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본사에서 열린 ‘2025 AI 데이’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

이사 사장 등 경영진과 AI관련 임직원, 삼성물산의 AI 혁신 파트너사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코리아 김윤식 엔터프라이즈 총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사장은 환영사에서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업에서 AI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축적한 우리의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AI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ENG혁신실장 소병식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기술 발전 현황, AI의 역설과 이유, AI를 통한 삼성물산의 혁신 방안 등을 소개했다.

소 부사장은 AI혁신의 3대 키워드로 ▲지식의 축적: AI를 단순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고유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문가’로

육성 ▲능동성 확보: 환각 현상이 필연적인 수동적 AI가 아닌 먼저 질문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AI파트너 구축 ▲관점의 전환: 외부의 기준으로 AI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삼성물산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AI 가치 측정·개선 등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데이터팀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업체 AWS와 공동 개발한 ‘AI 에이전트’의 3대 프로젝트 성과를 소개했다. ▲방대한 분량의 입찰제안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AI-ITB 리뷰어(Reviewer) ▲법무/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돕는 AI-계약매니저(Contract Manager) ▲흠어진 현장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AI-프로젝트 전문가(AIPEX) 등의 시연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

을 보여줬다.

AWS 김 총괄은 “글로벌 기업들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AI와 회사의 복잡한 데이터, 업무 프로세스, 보안정책 등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의 3대 AI에이전트 프로젝트는 AWS가 바라보는 글로벌 AI 성공전략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2025 AI 데이’에서는 AI 네이티브 건설사로 진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개발한 AI-ITB 리뷰어 등 AI 에이전트를 내년부터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등 향후 3년간 단계별 AI 전환을 추진해 건설업 전 영역에서 AI 중심으로 업무 지능화를 구현하고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현금부자 ‘로또청약’ 잔치… 트리니원에 8만명 몰렸다

당첨되면 20억~30억 시세차익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 237대 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에 8만명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만 되면 20억~3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2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가능한 청약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37대 1로 집계됐다. 230세대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접수했다. 타입별로는 전용 84㎡B의 경쟁률

이 531대 1로 가장 높았고, 접수건수로는 59㎡A가 2만5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86대 1이다. 276세대 모집에 총 2만3861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9825명, 8694명이 청약에 신청했다.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반포동 1109번지 일대의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다. 최고 35층, 17개동, 총 2091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506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223세대 ▲59㎡B 129세

대 ▲59㎡C 26세대 ▲59㎡D 78세대 ▲84㎡A 14세대 ▲84㎡B 29세대 ▲84㎡C 7세대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직결됐으며, 4호선 동작역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으며,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분양가는 평균 3.3㎡(평)당 8484만원이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최고 가격이 라고 하지만 인근 시세가 평당 2억원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21억3100만원, 84㎡ 27억4900만원이다. 다만 9.7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의 40%만 가능하고, 10.15대책으로 잔금시 59㎡는 최대 4억원, 84㎡는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84㎡라면 현금 25억원을 들고 있어야 한다.

지난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59㎡가 올해 8월 42억 5000만원, 전용 84㎡의 경우 최고 72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안상미 기자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강홀에서 열린 ‘광화문글판 35년 북콘서트’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35주년 시민이 뽑은 베스트는 장석주 시 ‘대추 한 알’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광화문글판 35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고, 시민이 직접 뽑은 ‘베스트 광화문글판’을 발표했다 고 12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2만2500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문안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견디며 익어가는 인내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민의 일상에 다정한 위로로 다가섰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 문학인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미디어 아티스트 염동균 작가의 VR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 베스트 글판 시 낭송, 기념 도서 북토크, 가수 요조의 공연이 이어졌다. 35년간 광화문글판의 철학과 여정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가진 힘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35년 동안 광화문글판은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시민들의 벚꽃으로 자라났다”며 “IMF와 환위기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절에도 광화문글판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

“석화, 책임있는 자구노력 시 금융 지원”

》 2면 ‘생산적 금융에…’서 계속

◆ 특사경 역할분담 재설정 필요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업경찰(특사경)도 인지수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의 주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인지수사는 고소고발 조치 없이도 수사기관이 불법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효율적인 조사와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선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지수사권이 공권력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부분들도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가 법체계와 관련해 역할분담의 범위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검찰, 법무부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수사부분과 조사부분에서 특사경으로 다시 수사를 내리는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설계해야

하는지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구조조정

아울러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큰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있는 자구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이 나올 때 금융권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회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종류에 얻은 나프타(중질 가솔린)를 800도의 열로 분해해 각종 산업의 기초소재가 되는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중국의 공급 과잉 여파로 석유화학업계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20년대 들어 ‘에너지·화학 자급률 70% 이상’을 목표로 대형 나프타분해센터(NCC)와 프로판탈수소(PDH) 설비를 공격적으로 신·증설했다.

정부는 3년내 업체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구조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대산산업단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NCC 통합을 위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4000억 규모 모펀드 출범

그룹 관계사 6곳, 年 1000억 출자 4년 간 총 4조 이상 자펀드도 결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집중 투자

하나금융그룹은 6개 관계사가 참여한 모펀드 출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한 첨단산업(ABCDEF)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및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 사장단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2026년 그룹 경영계획 워크숍’에서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를 핵심 주제로 선정,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의 조기 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자문

용, 하나벤처스 등 하나금융그룹의 관계사 6곳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그룹 관계사 6곳에서 내년 부터 매년 1000억원씩 출자해 4년간 총 4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해 4년간 총 4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사 중 하나벤처스가 모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하나 모두 성장 K-미래전략산업 벤처 모펀드’는 정책출자기관이 선정한 벤처펀드와 매칭 출자해 국가 전략 첨단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제조업(AI, Bio, Content s, Defense, Energy, Factory)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에 조성한 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G엔솔, 차세대 우주 배터리 개발 극저온 안정성 앞세워 신시장 공략

영하 60도서도 작동 안정성 확보
사우스8과 액화전해질 공동개발
NASA 프로젝트 참여 기술력 입증
‘포스트 전기차’ 성장동력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항공우주용 배터리 개발에 나서며 신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사우스8)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우스8은 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미국 타임(TIME)지 선정 ‘2024년 200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미래 성장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사우스8의 액화 기체 전해질은 영하 60도 이하의 극한 저온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액체



LG에너지솔루션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전해질이 영하 20도 부근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한계를 극복했으며 물리적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전지 내부의 액체 용매가 급격히 기화하면서 셀 온도를 낮추고 기화된 전해질이 빠르게 외부로 배출돼 ‘더미 셀(작동하지 않는 전지)’로 전환되는 원리로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인다.

특히 이번 협력은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KULR 테크놀로지 그룹이 추진 중인 ‘항공우주 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KULR은 텍사스 우주위원회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차세대 우주탐사용 저온 리튬이온 배터리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사우스8과 LG에너지솔루션은 액화 기체 전해질 기반의 배터리 셀을 제작한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극저온 환경에 특화된 셀 설계와 성능 평가·분석을 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우스8과 처음 인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액화 기체 전해질 기반 전지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제영 전무는 “액화 기체 전해질 기술이 극한의 추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기술을 통해 극저온 환경의 항공우주 탐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벤츠, LG·삼성과 차량용 전장 협력 논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2년 만에 방문
LG트윈타워서 주요 CEO들과 회동

2년만에 한국을 찾은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이 삼성과 LG 등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미래 차량용 전장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칼레니우스 회장은(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EO, 문혁수 LG이노텍 CEO 등 LG그룹 내 주요 계열사 수장들과 회동한다. 앞서 칼레니우스 회장은 지난해 3월 당시 독일에서 비공개 테크데이를 통해 LG그룹 주요 계열사 CEO들과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벤츠는 LG그룹과 오랜기간 협업을 이어왔다. LG전자는 벤츠에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운영체제와 조명 부품 등을, LG이노텍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센서 등을 공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 전기차에 배터리를,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

칼레니우스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벤츠가 국내에 판매중인 전기차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삼성 SDI로 공급망을 확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다양한 전장 부품에 대한 폭넓은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과 벤츠는 현재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키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칼레니우스 회장은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 부회장과의 만남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계열사 HS효성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이라는 큰 틀은 정해졌고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칼레니우스 회장은 14일 인천과 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미래 전략 콘퍼런스’에 참가해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시장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조용히 달리는 품격... 절제된 주행의 완성

자동차 시승기 벤츠 E200 아방가르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
정차와 출발 잇는 매끄러운 흐름
204마력 부드럽게 쌓이는 속도

조용히 달리는 차는 많지만, ‘조용하게 품격을 드러내는 차’는 드물다. 메르세데스-벤츠 E200 아방가르드(E200)는 그 미묘한 경계에 정확하게 서 있다. 단순히 부드럽고 편안한 차가 아니라, 모든 움직임에 절제가 깃든 세단이다.

시동을 걸면 이 차의 성격이 곧 드러난다. 엔진은 조용히 깨어나면서 실내로 전해지는 진동은 거의 없다. 2.0ℓ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48V 마일드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정차와 출발 사이의 이음새를 매끄럽게 잇는다. 전기모터의 미세한 개입이 소음과 울컥임을 잡아주면서 움직임 자체가 고급스럽다라는 인상을 남긴다. 운전자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미끄러져 나간다는 것을 금세 체감한다.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204마력의 힘이 조용히 쏟아진다. 급하게 나가지 않지만 꾸준히, 부드럽게 속도를 쌓는다. 9단 자동변속기(9G-TRONIC)는 변속 충격 없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엔진 회전이 낮게 유지돼 정숙성이 돋보인다. 고속에서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고 노면과 바람의 소리가 희미하게만 스친다. 차 안은 오히려 ‘정숙한 라운지’에 가까웠다.

서스펜션은 단단함보다 안정감에 초점을 맞췄다. 요철을 넘어도 차체가 출렁이지 않고 좌우 롤링이 적어 동승자도 편안하다. 코너를 돌아나갈 때의 움직임은 날카롭다기보다 유연하고 스티어링



메르세데스-벤츠 E200 아방가르드 외관 모습. /이승용 기자

감각 역시 가볍지 않으면서 정교하다. 운전자는 차를 제어한다기보다 ‘함께 리듬을 맞추는’ 느낌을 받게 된다. 벤츠 특유의 주행 밸런스가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실내는 조용한 주행감과 잘 어울리는 ‘절제의 미학’으로 채워졌다. 최신형 M-BUX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 금속 질감의 송풍구가 세련된 조화를 이룬다. 다만, 동승석 모니터나 뒷좌석 통풍시트 등 일부 사양은 상위 트림 전용이어서 경험해 보지 못했다.

뒷좌석 공간은 여유롭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뒷좌석 사람과 대화가 잘 들린다. 벤츠가 오랜 시간 쌓아온 정숙성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차음 유리나 소음 차단재가 세밀하게 배치돼, 주행 중 외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을 선사한다. 도심 속에서도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연비 효율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E200의 경우 공인연비가 12.4km/ℓ지만 실연비는 약 17km/ℓ를 기록해 고급 세단이면서도 연료 효율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안함의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애플, 초슬림폰 부진 딛고 AI로 승부

판매 부진에 초슬림 전략 수정
S25 엣지·아이폰 에어 잇단 제동
두께보다 ‘AI 경험’ 앞세운 경쟁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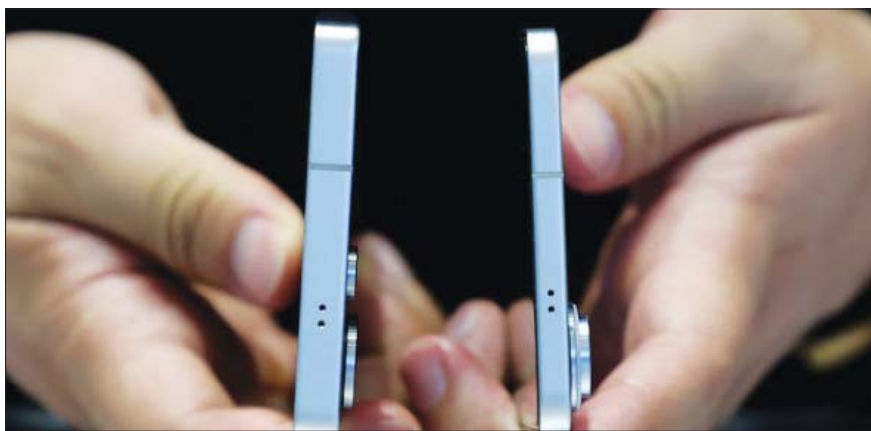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선보인 초슬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양대 스마트폰 업체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후속작 출시를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으며 애플은 차세대 제품 출시 일정을 늦추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초슬림 모델 ‘아이폰 에어2’의 출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년 가을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아이폰 에어 1세대의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제품 출시가 미뤄졌을 뿐 개발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따른다.

시장조사업체 CIRP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아이폰 판매량에서 아이폰 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시된 아이폰 17 프로(9%)와 아이폰 17 프로 맥스(12%)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의 약점으로 지적된 상위 모델 대비 낮은 성능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mm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나 단일 카메라 구성 등으로 인해 촬영 기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IT매체 나인투파이버맥은 IT팁스터 디지털챗스테이션을 인용해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 에어에 기본 카메라 외 초광각 렌즈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



삼성전자가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를 국내에 출시한 지난 5월 23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서 시민들이 갤럭시 S25 엣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라고 전했다.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아이폰 18 일반 모델과 기능 면에서 격차를 줄이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갤럭시 S25 엣지’를 5.8mm의 얇은 두께로 선보이며 초슬림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후속작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얇고 가벼운 폼팩터로 개발했으나 갤럭시 S25 엣지의 판매량이 내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자 판매 전략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갤럭시 S25 엣지의 출시 후 첫 달 판매량을 19만대로 추정했다. 지난 2월 출시한 S25(117만대), S25플러스(84만대), S25울트라(255만대) 대비 저조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 라인업에 플러스 모델을 빼고 엣지를 넣어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플러스·울트라 3종으로 꾸릴 방침이다.

라인업 조정에 따라 신제품 출시 일정 또한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월말~2월초에 신제품을 공개하는 연팩을 진행했으나 S26 시리즈는 내년 2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팩 행사를 열고 3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S26의 디자인을 전작 대비 얇은 두께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명 IT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최근 본인의 X(구 트위터)에 ‘6.9mm 갤럭시 S26’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을 이어받은 한 스마트폰의 디자인 스케치를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6.9mm가 제품 두께를 나타내는 수치로 S25 대비 0.3mm 얇아진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슬림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으나 제품 전반에서 두께를 줄이려는 시도는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디자인보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기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사전준비부터 물류까지 통합 지원

‘고비즈코리아’ 수출 게이트 활용
내년 ‘물류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브랜드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

정부가 해외 수출 준비부터 물류 서비스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물류 부담을 줄이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후 인천국제 공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에서 한성숙 장관이 온라인 수출 참여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망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맞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12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형 지원에 나선다. 동행축제, 각종 경진대회 등에서 글로벌 시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선별하고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략 품목이 쓸 수 있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시장

조사 등 해외진출 사전 준비부터 플랫폼 입점,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물류 서비스 등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셀러가 직접 현지에서 전략 품

목의 판로 확대를 돕는 ‘K-혁신사절단’도 운영한다.

해외 오프라인 진출을 원하는 수출 기업의 사전 컨설팅, 마케팅, 현지화 등을 돕는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도 시작한다.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 기업과 유통사의 협력 프로젝트형 온라인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플랫폼과 수출 기업 간 친화도도 높인다. 우수 제품의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를 지원하는 기존 플랫폼 ‘고비즈 코리아(GobizKOREA)’를 온라인 수출 통합 게이트로 탈바꿈한다.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품·바이어를 매칭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 기업 등 민간에서 상품성을 인정받는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찾아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해외 진출 정책 자금을 지급한

다. 수출 기업에는 글로벌 플랫폼 입점, 마케팅·홍보비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에는 수수료 우대, 교육·컨설팅 혜택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류 및 통관 관련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는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 마련, 풀필먼트 제공 확대,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 시 최대 15~30% 할인 혜택 등이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중소기업 전용 수출 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오는 2026년 말 문을 연다.

중기부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모방 문제로부터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등과 ‘K-브랜드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을 출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스마트공장 구축 中企 “매출·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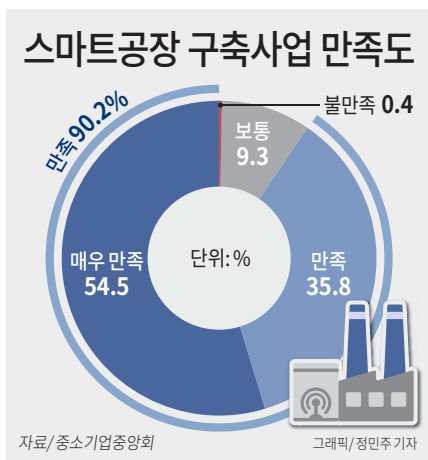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사업 의견 조사
기업 10곳 중 8곳 “구축 솔루션 만족”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포스코가 지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선 참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만족했다. 구축 솔루션에 대해선 10곳 중 8곳이 만족을 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246개사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도입 성과, 필요한 정부 정책 등 의견을 조사해 1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후 고용 변화에 대해 응답기업의 33.3%가 ‘늘었다’고 밝혔다. ‘줄었다’는 0.4%에 그쳤다. 66.3%는 ‘변화 없다’고 답했다.

매출 변화에 대해선 47.6%가 ‘증가했



다’고 응답했다. 반면 ‘감소’는 2%, ‘변화 없음’은 50.4%였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0.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은 0.4%에 그쳤다. 구축 솔루션에 대한 만족도 역시 82.1%가 ‘만족’을, 0.8%는 ‘불만족’을 각각 표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주요 성과로는 ▲작업환경 개선·산업안전 향상(48.8%) ▲생산성 증가(44.3%) ▲품질 향상·불량률 감소(43.1%) 순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지역·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확대’(61%),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및 인프라 지원 확대’(37%),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확대’(36.2%), ‘도입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 연계 지원 강화’(22%) 등의 정책적 지원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노하우와 기술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공유, 확산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성과나 만족도에서 크게 차별화된다는”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체감하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부담, 전문 공급기업 매칭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대기업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이 제조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HS효성첨단소재, 인도 신규법인 설립

3000만달러 출자… 타이어코드 생산

HS효성첨단소재가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자국내 GDP 1위인 마하라슈트라주에 신규법인 ‘HS Hyosung India Private Limited’를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3000만달러(약 430억원)를 출자해 타이어코드 생산을 위한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처를 다각화하기 위함이다.

인도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프라 확대와 물류산업 발전으로 타이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어코드의 현지 조달 수요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인도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한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나그푸르 산업단지에 약 7만평 규모의 생산부지를 확보하고 2027년 타이어코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에어백 원단 등 자사 핵심 제품군의 생산 라인 증설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여 년간 세계 1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현재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베트남,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 고객사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맞춤형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등 변화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화를 위한 고강력 타이어코드와 타이어 성능 향상을 위한 고탄성 타이어코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고객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소상공인 10월 체감 BSI 79.1… 5년來 최고

“소비쿠폰 정책 효과 등 변동성 여전”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지, 회복의 전조인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월 소상공인 전망 BSI도 90.7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란 현재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사업체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지수가 100 초과면 ‘호전’, 100 미만은 ‘악화’를 뜻한다.

소상공인 전망 BSI도 11월 들어 9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9p 상승,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올 하반기 추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이 체감 BSI 개선의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연말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 BSI에 반영된 만큼 하반기 릴레이 소비 촉진행사 등 예정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체감 BSI와 전망 BSI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같은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가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BSI가 100 언저리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각각 70대거나 90대 초반”이라며 “민생경제가 호전될 조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아직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이노비즈協,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 지원

코넥스협회 업무협약 체결

이노비즈협회가 코넥스협회와 손잡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코넥스협회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이노비즈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코넥스협회는 이노비즈 기업에게 코넥스시장 제도와 기업 성장 전략,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회원을 적극 발굴·추천하고, 코넥스시장 상장 및 자본시장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협회는 이번 협약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회원이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2025 제3회「글로벌 ACX 초월대상」시상 및 컨퍼런스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시 : 2025.11.26.(수) 13:40 ~ 17:10 | 장소 : 메타빌드빌딩 대강당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한국SW·ICT총연합회



후 원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시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AI·SW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한국빅데이터학회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기관·개인	1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신문사, 한국빅데이터학회, 한국SW·ICT총연합회

[제1부] 제3회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14:00~14:05	5′	시상식 개회		
14:05~14:30	25′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 총연합회
		환영사	류제명 차관	과기정통부
		축사	김 현 의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축사	이해민 의원	국회 과방위 (조국혁신당)
		축사	임문영 부위원장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격려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
		격려사	이장규 사장	메트로경제
14:30~15:00	30′	시상식 및 기념촬영		
15:00~15:20	Break Time			

[제2부] 컨퍼런스 : 공공 ACX 구축과 비즈니스 전략

일정	시간(분)	트랙 I	트랙 II
15:20~15:40	20′	[기조강연] 국가 인공지능정책 기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15:40~16:00	20′	OmniEsol의 공공기관 업무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활용 전략 더존비즈온 전충재 상무	AIGen과 함께하는 양방향 바이브 코딩 혁신 토마토시스템, 이지울 연구소장
16:00~16:20	20′	공공AI 에이전트 활용전략과 비전 클라이온 박윤지 대표	AGI의 현재와 미래 (주)PCN, 이금탁 전무
16:20~16:40	20′	Agentic AI를 이용한 SW Test 업무 혁신 사례 소개 와이즈와이어즈, 허태범 상무	AI경쟁력의 핵심, 데이터 품질 한국정보기술단 이동석 본부장
16:40~17:00	20′	공공AI 대전환 실천지침 투이컨설팅 이승봉 상무	공공 AX 통합플랫폼 구축전략 (LLM/RAG Ops, Agent Build, MCP/A2A) 메타빌드 오강탁 본부장
17:00~17:10	10′	경품 추천	

효율적인 AI ‘알고리즘 관리’?… 노동자 감시·도구화 초래

ITUC ‘AI: 노동조합에 미치는 함의’ AI 도입, 업무 효율화 압박 강화 생산성 향상 혜택, 노동자에 공유돼야

인공지능(AI)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 일자리 감소 수준을 넘어 ‘알고리즘 관리’를 통한 ‘업무강도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국제노총)은 최근 발간한 ‘인공지능(AI): 노동조합에 미치는 함의’란 보고서에서 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 노동자에게 끼치는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며 노조의 전면 개입을 통한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촉구했다.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우려해 온 핵심 주제다. 모든 기술 혁신이 일자리 구조와 조직 방식을 변화시켜왔기 때문이다.



AI가 ‘노동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록으로 생성한 이미지

일부 기술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생성형 AI가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생성형 AI의 출력 품질이 아직 숙련된 인간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AI가 일자리 자체를 대량으로 없애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AI로 인력을 대체했던 기업 중 일부가 사람을 재고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수정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ITUC는 AI 기술 도입이 업무 효율화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 대신 하청이나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를 활용해 AI가 이들을 자동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UC는 “AI는 특정 직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 수요를 창출한다”면서 “현재 나타나는 주요 변화는 ‘자동화’보다는 ‘증강’, 즉 노동 강도 증가와 업무량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가 노동 환경에 미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알고리즘 관리’의 확산을 꼽았다. 알고리즘 관리란 AI나 기타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용해 인사 관리·감독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업무 배정, 교대, 근무 시간, 성과 평가, 임금 산정, 징계·해고 등 노동 조건 전반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된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뿐 아니라 물류, 현장 서비스, 콜센터 등으로 확산돼 노동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운영되며, 과도한 감시·압박, 높은 스트레스, 자율성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ITUC는 “AI 기반 감시 강화는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율적

업무조직 능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단체교섭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또 AI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선별하거나 지원자 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하는 경우 계층·인종·성별에 따른 편향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 산정의 불투명성과 변동성 또한 커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근로 조건 개선으로 노동자에게 공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ITUC는 “단체협약에는 AI 도입시 투명성 확보, 감시 제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 기준, 재훈련 기회,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그 이익이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LG U+, 올인원 알뜰폰 서비스 ‘알닷 2.0’

온라인서 대부분 업무 직접 처리 eSIM 기반 선불요금제 셀프 개통 도입

LG유플러스가 올인원 알뜰폰 서비스 ‘알닷’의 기능을 대폭 개편한 ‘알닷 2.0’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시된 알닷은 약 900여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하고 비대면 셀프 개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올해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 300만 명을 넘어섰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이용자 증가에 맞춰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단행했다.

알닷 2.0은 고객이 요금제 변경, 해지, 개통 등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에

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새로 추가된 주요 기능은 ▲‘알닷케어’ 셀프 처리 서비스 ▲선불요금제 유심·eSIM 셀프 개통 및 충전 ▲부가서비스 가입·조화·변경 ▲인터넷·IPTV 결합 상담 신청 등이다.

특히 ‘알닷케어’는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는 27개 알뜰폰 사업자 고객을 위한 온라인 통합 고객센터로, 이번 개편을 통해 ▲증명서 발급 ▲번호 변경 ▲요금 즉시 납부 ▲유심·eSIM 변경 ▲불실편 위치 찾기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개선돼, 첫 화면에서 실시간 사용량과 요금제 기간, 부가서비스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알닷에서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eSIM 기반 선불요금제 셀프 개통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유심 개통만 가능했으나, 선불요금제 가입자 증가에 따라 유심과 eSIM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개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60여 종의 부가서비스도 이제 알닷에서 직접 조회, 변경, 해지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과 함께 이용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알닷에 처음 휴대폰 정보를 등록한 선착순 1000명과 개편 관련 퀴즈에 참여한 1000명에게 각각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모빌리티 서울 상암지역에 DRT 서비스 도입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부터 탑승,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서울 상암 지역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DRT는 이용자 호출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노선과 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해진 노선 내에서 호출이 발생한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고정 노선’ 형태로도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마포구 상암 일대 ‘A02’ 노선에서 서비스를 운용한다. 해당 노선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1대를 포함해 총 2대의 차량이 운영된다.

이용자는 카카오 T 앱 내 전체보기에서 ‘DRT’ 아이콘을 선택한 뒤 노선, 승하차 정류장, 탑승 인원과 시간을 설정해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KT, 국내에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선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개발한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융·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이후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를 기반으로 하며, 국내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KT는 이를 통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MSP(Managed Service Provider)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는 KT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 전 과정(저장·전송·사용)의 보호 ▲고객 자원 권한 강화 ▲국내 데이터 저장·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기밀 컴퓨팅(Confidential Computing)’ 기술을 적용해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암호



모델들이 국내 디지털 주권과 강력한 클라우드 성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하는 모습. /KT

화함으로써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관리형 HSM(하드웨어 보안모듈)’을 통해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전용 키(CMK)를 안전하게 생성·보관·통제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서 저장·관리되며, 이용 기업과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KT는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까지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출시를 계기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보안요건에 따라 CSAP 인증을 획득한 KT클라우드, AWS 등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블프행사, 누적판매액 1조 돌파

1만여개 브랜드, 490만개 제품 참여

네이버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진행한 연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프로모션 ‘넵다세일’ 행사의 2주간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실시한 ‘넵다세일’ 행사에는 디지털·가전, 패션·뷰티, 신선식품 등의 카테고리에서 1만여개 브랜드의 490만개 제품이 참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넵다세일’ 한정 단독 상품부터 최저가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색의 기획전에 배송 경쟁력을 갖춘 N배송 상품, 풍성한 할인·적립 혜택이 더해지면서 사용자에게는 만족도 높은 쇼핑 경험을, 판매자에게는 매출 상승의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

등록된 상품 판매 금액 기준으로 누적 판매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프로모션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넵다세일’에 함께한 전체 브랜드스토어·스마트스토어 셀러의 평균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자(SME) 셀러들의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늘었다.

네이버 단독으로 한정 수량·전용 구성 상품을 모은 ‘넵다 오리지널’ 코너와, 50% 이상 할인 제품이나 1+1 혜택을 제안한 ‘넵다반값’ 등 주요 기획 코너가 이용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다. 일례로, ‘넵클’, ‘에어메이트’와 같은 인기 가전 브랜드가 ‘넵다 오리지널’ 코너에서 선보인 한정 수량 상품은 오픈 1시간 만에 완판됐으며,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메가커피’ E-쿠폰은 행사 기간 120만건 이상 거래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 ‘카나나’, PC에서도 이용하세요”

‘카나나’ 웹 버전 선보

카카오가 ‘카나나’를 출시하며 이용자들의 경험 확장에 속력을 낸다.

카카오가 AI 에이전트 앱 서비스 ‘카나나’의 웹 버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앱뿐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웹 버전의 카나나는 URL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 앱 이용자의 경우 동일한 계정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는 웹 버전 카나나 출시 초개인 메이트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며, 그룹방 기능 등은 단계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첫 화면에서는 개인 AI 메이트 ‘나나’

를 만나 다양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화면 왼쪽의 리스트에서 만날 수 있는 스페셜 AI 메이트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모바일 앱 카나나를 새롭게 업데이트 하며 ▲타로 ▲사주 ▲챗런지 ▲스터디 코칭 ▲보험 상담 등의 스페셜 AI 메이트 총 5종을 신설, AI와 인터랙션하는 이용자 경험의 폭을 한층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이번 웹 버전에는 카나나의 다양한 대화 주제들을 발견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카나나 더 알아보기’ 메뉴를 추가했다. 주제별 메이트를 자세히 소개하고, 카나나의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소식 등을 전달하는 공간이다.

향후 모바일 앱 카나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웹 버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AI 수요에 커진 ‘반도체 낙관론’… 버블 아닌 사이클 분수령

모건스탠리, 삼성·하이닉스 목표가↑
HBM4 멀티밴더 전환, 증설경쟁 가속
AI 서버 확산에 범용 D램값 급등
19일 엔비디아 실적, 향후 흐름 좌우

“뜻이 ‘십만전자(삼성전자 10만원)’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십만전자’도 이루어지리라. (중략) 다만 105층(10만5000원)에서 구하옵소서.”

최근 직장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른바 ‘삼기도문(삼성전자+기도문)’이 다시 화자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하락은 막고 상승을 기원한다’는 희망을 담아 만든 글이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탄 개인투자자들은 10월 들어 3조9000억원어치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사실상 개인이 홀로 버티는 ‘외끌이 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반도체 밸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로 모이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 시대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12일까지 94%, SK하이닉스 주가는 255% 올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다. 작년 말 기준 두 회사 시가총액은 합계 400조원대였지만, 현재 두 배 넘게 불어났다. 5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이재명 밸리’가 시작된 6월부터 오름세를 타더니 9월 이후 AI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곡선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있다.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챗GPT를 개

발한 오픈AI는 이달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제안했다. 앞으로 5년간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해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협력해 달라는 요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테크인사이즈는 2030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2200억 달러(약 3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

다. 이는 지난해 말 시장 규모(1580억 달러)에서 40% 급증한 규모다.

반도체 호황은 실적이 말해 준다.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3분기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2%, 31.81%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38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7조299억원)보다 61.9% 증가한 수치로,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투자 붐, 생산성 못 받치면 거품 위험”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슈퍼사이클은 진짜”라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2년 주기로 등락했던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모바일과 PC, 가전 등 소비자 중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라는 점에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런 배경 속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신고가는 통상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메모리 수요가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이들은 기존 고객사보다 가격에 덜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도 각각 14만4000원, 73만원으로 제시했다. 2021년 ‘메모리-겨울이 오고 있다(Memory: Winter is coming)’라는 제목으로 하락 사이클을 경고했던 같은 기관이 3년 만에 “AI 수요 중심의 구조적 상승세”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UBS는 “10년에 한 번 오는 슈퍼사이클”이라 평가했다.

변수는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에서 HBM4 샘플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단일 공급 체제는 막을 내렸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AI 과열과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AI 등 일부 기술주 시장으로의 ‘투자 붐’에 따른 자산 거품 위험을 경고했다. AI 등 기술 분야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자산 가격이 급격히 조정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하나자산운용 ‘파이팅코리아’ 펀드 순자산 1000억 돌파 밸류업·바이칩 전략 결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 1월 2일 출시한 ‘하나 파이팅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 파이팅코리아’ 펀드는 밸류업코리아 전략과 바이칩 코리아 전략을 결합해 주주환원을 개선과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밸류업 전략은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펼치는 기업 가운데 향후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을 선별한다.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은 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바이칩 전략은 대내외 이슈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가치주 재평가형 투자를 진행한다. 저PBR, 현금창출능력 개선, ROE 상승세 등 펀더멘털 회복이 뚜렷한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종목 선정 기준은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매입/순이익) ▲저평가도(PBR) ▲현금흐름 개선 ▲ROE 개선 등 네 가지 요소다.

‘하나 파이팅코리아’ 펀드는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약 65%)을 크게 웃도는 8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약 20%의 초과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밸류업 관련 16개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다.

/허정윤 기자

자본연, 토큰화 금융 확산 국채도 디지털 담보로 전환

‘디지털 전환, 국채 토큰화 이슈 브리핑’ 국채토큰, 무위험금리 기준 있고 단기 전환 어려워도 확산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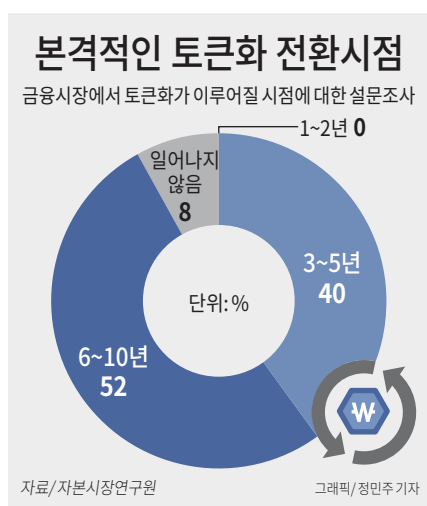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국채 토큰화’가 담보·결제 인프라의 새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원·정화영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채 토큰화 이슈 브리핑’을 통해 “무위험금리의 기준점인 국채의 기능은 토큰 형태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당장 전면 전환은 어렵더라도 토큰화 MMF 확산과 파일럿을 통해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갖춰질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위험금리의 기준점 역할, 담보 증권으로의 높은 활용도 등 국채의 역할과 기능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국채가 국채토큰 형태로 그 기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발행 단계부터 토큰 형태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콩은 녹색 국채토큰을 잇달아 발행하며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는 개념검증·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채의 ‘간접 토큰화’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두 연구원은 “글로벌 토큰화 펀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MMF(머니마켓펀드) 유형으로, 주로 미국 시장에서 자산을 단기 국채로 운용한다”며 “토큰화 MMF는 사실상 즉시 결



제가 가능해 자금 관리의 유연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려웠던 담보 증권으로의 사용도 가능해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파생·레포(Repo) 거래에서 증거금·담보로 쓰이는 실사용 사례도 늘고 있다.

토큰화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국채도 큰 효용은 더 커질 전망이다. 스마트 계약과 원자적 결제(동시결제)로 담보 적격성 판단, 평가, 이전이 자동화되고, 일중 레포와 같은 고빈도·단주기 담보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국채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담보와 무위험금리의 기준점으로 작동할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과제도 분명하다. 토큰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 관계 명확화, KYC/AML 등 규제 정합성, 이기종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결제 유동성 확보 등이 대표적이다.

/허정윤 기자

기준금리 동결 여파에 채권시장 ‘찬바람’

금투협,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완화 기대 후퇴에 금리 일제 상승
거래량 줄고 자금 유입도 둔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한 달 전보다 11조원 넘게 줄었다.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5년 10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13.4bp(1bp=0.01%포인트) 오른 2.716%로 마감했다. 10년물과 30년물 금리도 각각 11.0bp, 14.4bp 상승하는 등 전 구간에서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달 중반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재점화,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논

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글로벌 금리 흐름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연 2.50%)과 매파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 여기에 3분기 GDP 성장률 반등(1.2%)과 증시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가 더해지며 금리는 상승 전환했다.

채권 발행 규모는 전월보다 16조 2000억원 줄어든 78조 원에 그쳤다. 특히 회사채 발행은 9조 8000억원으로 6조 3000억원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채 1조7000억원, 통안증권 1조300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기타채권 7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대신송촌문화재단, 괴산에 사랑의 성금

다문화가정·재활 한우 지원 확대

대신송촌문화재단은 12일 충청북도괴산군 가족센터와 청천재활원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어몽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해 성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활 한우들의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괴산군에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오고 있다.

1991년 고(故) 양재봉 명예회장의 뜻을 기려 설립된 대신송촌문화재단은 국내 증권업계 최초의 순수 문화재단으로, 30년 넘게 문화·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나주시 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진로캠프를 열고, 초·중학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허정윤 기자

“대미관세 불확실성 어느정도 해소 산업 근원 경쟁력 강화 집중해야”

산업부, 정책자문위 첫 회의

산업·통상·자원 전문가 26명 구성
체감 가능 ‘효능감 있는 정책’ 목표

산업통상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새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꾸려졌다.

자문위에는 산업·통상·자원 등 3대 축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26명(산업 11명, 통상 7명, 자원 8명)으로 구성된다. 산업 분야에는 김영오 서울대 공대 학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참여하고, 통상 분야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지형 서울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자원 분야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심형진 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산업부는 자문위를 통해 정책 설계 과정 전반에서 민간의 시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제조업의 AI 전환(AI X)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성장엔진 구축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등 산업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자문위원들의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분야별 회의를 정례화해 전문가와의 협의·소통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제를 끌어내는 한편, 산업 현장, 연구기관, 지자체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관계기관 의견수렴 거쳐 내달 시행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작황부진 배추’ 비축·계약물량 방출 확대

농식품부, 농산물수급조절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철을 맞아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배추 작황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방출을 예년 대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장관의 자문기구

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20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를 비롯해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류 연관 K-소비재, 새 수출동력으로”

산업부, 유통기업 간담회
무신사·쿠팡·CJ올리브영 등 참여
“유통플랫폼, 해외소비자 연결 가교
연내 수출 확대방안 발표할 것”

산업통상부가 K-패션·푸드·뷰티 등 한류 연관 소비재 산업을 ‘K-수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맞춰 K-소비재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고, 국내 유통 플랫폼 중심의 맞춤형 수출 전략도 마련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을 방문해 K-패션의 해외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무신사·달리버드코리아·쿠팡·CJ올리브영·컬리 등 주요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소비재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한류 연계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K-컬처를 매개로 한 소비재 수출 육성을 위해 세 가지 축의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K-POP 콘서트, 한류박람회 등 글로벌 한류 이벤트와 연계해 K-소비재 브랜드 홍보 기회를 늘리고, 유통 플

랫폼이 직접 주도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고도화한다. 단순 판촉 지원을 넘어 ‘K-소비재 프리미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출 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부는 KOTRA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등과 협업체를 물류 인프라와 해외 인증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제품군별로 맞춤형 물류·통관 솔루션을 제공하고, 할랄 등 국가별 인증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역지구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물류 구축과 홍보 지원,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연결, 통관·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르빵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 모습. /aT

aT, 우리밀 활용 제빵·제과 상품화 추진

‘르빵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르빵(Le Pain) 챔피언십’ 베이커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밀을 활용한 제빵·제과 기술 확산 및 상품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국산밀을 활용한 ‘우리밀 빵드미’ 부문을 신설해 추진했다. 빵드미란 균일한 내부와 부드러운 크러스트가 특징인 촉촉한 식빵을 말한다.

대회에서는 또 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시범 추진한 블렌딩(품질 균일화를 위한 원맥 혼합) 국산밀이 사용됐다. 이를 통해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제빵성을 확보하며 블렌딩

국산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밀 빵드미 부문 1위는 빵고 베이커리(류신혁 조리장)가 차지했다. 빵고 베이커리의 제품은 풍성한 볼륨감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국산밀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리밀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위 수상자에게는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팝업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경연에는 지난 9월부터 전국 35개 베이커리 업체가 치열한 예선을 거쳤다. 이달 6일 서울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열린 현장 결선에서 3개 우수 업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외생물자원 특허기술 3건 전문기업 이전

국립생물자원관, 건기식 개발 등 활용

국립생물자원관이 13일 해외생물자원을 활용해 발굴한 3건의 특허 기술을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항비만 효능이 우수

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카레야 아르보레아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와 관련된 기술이다.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에서 분리한 항비만 효능물질 기술을 이전받는 조아파마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

이 있는 카레야 아르보레아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는 뉴셀팜은 관련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크림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 파마코바이오와 이엠에스가 약 10m 높이까지 자라는 열대식물 크로톤 포일라네이의 탁월한 악취저감 효능 기술을 이전받는다. 관련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탈취샴푸, 축산농가용 환경개선제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전북도, 내년도 예산안 10조9770억 편성

올해 본예산比 2492억 늘어
산업·정주·복지 중심 배분
정책효과와 현장체감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삶의 실질적 변화와 미래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0조977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92억원(2.3%) 증가한 것으로 정책 실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산업·정주·복지 전 분야에서 체감 성과를 만드는 데 재정의 방점을 뒀다.

도는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도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본격화한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 일자리, 골목상권 회복 등을 통해 생활 기반부터 회복의 동력을 만든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2026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희망채움 통장, 육아안정 특례보증 확대 등 위기 대응 금융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장했다. 또한 청년·신증년 대상 일자리와 웹툰·에너지·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일자리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한다.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1조 7000억원 규모 발행,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소비 순환 구조도 함께 회복할 예정이다.

미래산업은 기술 실험 단계를 넘어 실증, 상용화, 투자 연계로 나아간다.

농생명 분야는 생산 중심에서 유통, 스마트화, 정주까지 이어지는 산업 체계를 완결한다.

문화와 관광 분야는 찾는 전북에서 머무는 전북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유니크베뉴 발굴, 야간관광 특화도시 등 체류시간 연장 전략이 본격 추진되고, 전북형 문화집강소, 민간 소공연장 청년 인력 지원 등도 민 참여형 문화생태계도 강화된다.

주거, 보육, 의료, 재난 등 생활 기반은 생활권 단위로 재설계됐다. 반값 입

대 '반할주택' 300호 공급, 청년부부 결혼비용(스드메) 지원,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구입 지원 등 인구 대응 정책은 물론, 어린이집 필요경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돌봄 공공성도 강화된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상시 운영, 지역보건의사 순회진료, 재해위험지구 정비, AI 기반 재난예방기술 등 의료·안전망 통합 정책도 지역 단위로 본격 적용된다.

특히 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준비사업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는 전북의 강점인 K-컬처, 친환경, 디지털 운영모형을 중심으로 '왜 전주여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를 실현하고 미래로 가는 방향성을 재정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성과 중심의 실행력을 높여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정훈 기자 taiji181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10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LG세이커스와 답례품 공급 협약식에서 김중필 경남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창원시-LG세이커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협약

창원시는 LG세이커스와 답례품 공급 협약식을 지난 10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세이커스 홈경기 관람할 인권이 10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프로농구 분야에서는 최초 등록 사례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를 통한 지역 상생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창원LG세이커스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연고지와 모기업이 유지된 팀으로 2024-25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릉군

성수동서 울릉 관광 팝업 운영

울릉군은 13일 부터 16일 까지 4일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6-1 일원에서 '울릉 관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수동에서 만나는 작은 울릉도(WAVE ON ULLEUNG)'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트렌디한 서울 성수동 공간 속에서 울릉도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울릉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울릉(경북)=박병복 기자 pbr34@

영주시

전입 동시에 지방세 자동납부

영주시가전입신고 시점에 지방세 자동납부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납세 시스템을 도입한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시민 편의 중심 행정을 실현하려는 이번 조치는 납세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시는 2026년부터 '전입과 동시에 지방세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신청'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입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 관련 서비스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번거로운 후속 신청 없이 세금 고지와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경북도는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수확절을 맞아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영암군, 친환경 수소여객선 건조 추진

2027년까지 총 40억 투입
나불도~마한문화공원 운행

친환경 수소여객선이 영암군 일대, 고대 마한의 영산강 뱃길을 되살린다. 영암군은 '지역특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핵심 과제로 2027년까지 총 40억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 건조에 나선 것이다.

대불국가산단의 친환경 선박제조기업인 (주)빈센, (유)이원마린, (주)마스터볼트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여객선 건조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산업 체질 개선 등의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장 17m, 30인승, 25톤 규모의 완전 탄소 무 배출형으로 건조될 여객선에는, (주)빈센이 독자 개발한 100kW급 수소연료전지, 70kW 추진모터 2기, 92kWh 배터리 4기가 탑재된다.



영암군 수소여객선 가상 이미지. /영암군

이 수소여객선은 영산강을 따라 나불도에서 시종면 마한문화공원까지를 오가며, 마한의 심장이던 영암 지역의 역사문화유적도 재조명한다.

영암군은 영산강 수변 생태체험을 더해 '에너지 전환-역사문화관광-생태 체험'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역 관광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객선 건조첫해인 올해는 선박 개념 설계, 유체 해석, 폭발 및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구조물 조립, 해상 시운전, 선박 완성을 추진한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 나서

2035년까지 총 14개 규모 구축

포항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시민 여가 및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에는 4개소 108홀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평균 홀당 인구가 2166명인 반면 포항은 4635명으로 시설 확충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북부 권역별 대규모 파크골프장과 실내스포츠타운을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

성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 남부권에 72홀, 북부권에 108홀을 추가로 조성해 총 14개소 603홀 규모로 확충할 예정이다. 인구 대비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인프라가 구축되며, 실내연습장과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중심권에는스크린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복합 실내 스포츠타운을 건립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체육활동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울산시, 내년 예산안 5.6조로 시의회 제출

4878억 늘어난 규모

울산시는 5조 6446억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5조 1568억원 대비 4878억원(9.5%) 증가한 금액으로, 국비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4189억원, 특별회계 68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예산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 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복지·민생, 환경·녹지, 도시 개발 및 SOC, 경제·미래·신산업, 재난·재해·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6개 분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 199억원,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400억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670억원, 조선업 기술 혁신 84억원,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70억원 등이 포함됐다.

AI 수도 울산 추진을 위해 국비 외 116억원을 별도 편성했으며 청년주택 건립 104억원, 어린이 과일 간식 및 학교급식 지원 287억원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 사업도 담았다.

시는 민선 8기 동안 채무 비율을 18.5%에서 11%로 낮추는 등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했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며 AI 산업과 정원을 중심으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주시, APEC 효과로 관광객 23% 급증

외국인 방문객 35.6% 늘어

경주시가2025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기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589만6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만8838명)보다 2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방문객은 20만6602명으로, 지난해(15만2363명) 대비 35.6% 늘었다.

관광명소별로는 황리단길과대릉원 방문객이 118만6714명으로 지난해(96만4653명)보다 23% 증가했으며, 동

궁과월지입장객(온·오프라인발권)은 24만2522명으로 5.6% 늘어 주요 관광지 전반이 활기를 띠었다.

경주시는 이러한 수치를 'APEC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곳곳에서는 본행사과 기업인자문위원회, 문화공연, 미디어 취재 등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이 시기 국내외 언론이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면서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평가다. 특히 황리단길과 대릉원은 정상회의 대표단과 외신 기자들의 주요 방문 코스로 꼽히며 SNS와 해외 매체를 통해 활발히 소개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홀리데이 한정판 만나보세요”… 커피업계, 시즌 마케팅 절정

투스썸플레이스

윈터베어 등 시즌 한정 케이크 선보

스타벅스

연말까지 ‘e-프리퀀시’ 이벤트

메가커피

슈퍼주니어 ‘SMGC 캠페인’ 전개

연말이 다가오자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본격적인 ‘홀리데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겨울 시즌 한정 음료와 디저트, 굿즈를 앞세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한 해 매출의 피날레를 장식하려는 전략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 카페업계 최대 성수기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매장 인테리어부터 한정판 케이크, 인플루언서 협업까지 브랜드별로 연말 감성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투스썸플레이스는 오는 15일부터 배우 박규영과 함께한 신규 광고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연말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도 투썸의 대표 시그니처 메뉴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과 ‘화이트 스초생’이 핵심이다. 여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딸자 아바 홀케이크’까지 더해 총 세 가지 홀케이크 라인업으로 크리스



2025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 신제품

/투스썸플레이스

마스 수요를 겨냥한다.

투스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초생은 250만개가 판매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300만개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스트로베리 산타’, ‘윈터 베어’, ‘멜팅 스노우맨’ 등 시즌 한정 케이크 6종을 선보였고, 오는 19일에는 프랑스 코냐 브랜드 ‘헤네시(Hennessy)’와 협업한 한정판 케이크도 출시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매년 연말 대표 행사로 꼽히는 ‘e-프리퀀시’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일정 수의 음

료를 구매하면 한정판 굿즈를 증정하는 행사로, 시작 일주일 만에 매진되는 사례가 속출할 만큼 인기가 높다. 올해는 이탈리아 파션 브랜드 ‘MSGM’과 협업해 플래너, 파우치, 담요 등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연말 시즌 한정 음료와 크리스마스 컵 디자인으로도 소비자들의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앳웍스는 홀리데이 시즌 음료 3종을 선보였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페모카에 짭짤한 마스카포네 크림을 올린 ‘홀리데이



커피앳웍스 홀리데이 시즌 음료 3종

/SPC

모카’, 잔 테두리에 달콤한 시나몬과 설탕을 묻히고 부드러운 플랫크림을 더한 ‘시나몬 플랫화이트’, 달콤한 과일의 향이 가득한 허브차에 상큼한 레몬, 은은한 생강향이 조화로운 ‘핑크레몬 진저티’ 등이다. 신제품은 커피앳웍스 전 매장에서 판매된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16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홀리데이 시즌음료 3종 구매 시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가MGC커피는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슈퍼주니어와 함께하는 ‘SMGC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국 매장에서는

멤버들의 사인이 담긴 컵홀더와 20주년 기념 포스터가 비치되고, 매장 내에서는 슈퍼주니어가 직접 녹음한 음성 메시지와 CM송도 들을 수 있다. 팬심과 커피 소비를 동시에 겨냥한 이색 협업이다.

블루보틀커피 코리아 역시 지난 10일부터 겨울 시즌 한정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였다. ‘윈터 라떼’와 ‘진저스넵 놀라’, ‘진저스넵 놀라 플로트’가 이번 시즌 주력 메뉴로, 디저트 라인업에는 ‘윈터 스트로베리 타르트’와 ‘체리 피스타치오 마들렌’이 추가됐다. 블루보틀 특유의 미니멀 감성과 겨울 분위기를 결합한 시즌 한정 굿즈도 함께 출시됐다.

업계는 이 같은 연말 경쟁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추워진 날씨로 실내 공간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매장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즌 한정 프로모션이 매출 견인의 핵심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은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라며 “매장 방문객을 늘리고 홀리데이 굿즈와 케이크 판매까지 연계해 연말 특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BQ, 남아공 MF 계약… 아프리카 대륙 공략

〈마스터 프랜차이즈〉

굿트리사우스아프리카 QSR 매장 운영
윤홍근 회장 “K-치킨 중심 한식문화 전파”

글로벌 K-푸드 대표 브랜드 BBQ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이하 MF)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나선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북미와 중미를 넘어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K-푸드 위상을 한층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F 계약은 BBQ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남아공 현지에서 한국 식품 유통사업을 운영 중인 ‘Good Tree South Africa’와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과 이동일 Good Tree South Africa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했다.



BBQ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현지기업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윤홍근(오른쪽) 제너시스BBQ그룹 회장과 굿트리사우스아프리카 관계자가 계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남아공의 인구는 6302만 명, 중위 연령이 28세로 외식업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국가다. 또한, 남아공양계협회가 올해 6월에 발표한 ‘2024 남아공 가금류 산업 통계 요약(Poultry Industry Statistics Summary for 2024)’에 따르면, 남아공

의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약 36kg 수준으로, 전체 육류 소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닭과 관련된 식문화가 발달된 나라다.

BBQ는 남아공 내 3000여 개 슈퍼마켓 브랜드를 운영 중인 Good Tree South Africa와 함께 QSR(Quick Service Restaurant) 형태로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며 향후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블룸폰테인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자 K-푸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며 “현지의 문화와 입맛에 맞춘 차별화된 메뉴 구성과 서비스로 ‘K-치킨’을 중심으로 한 한식의 문화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KASBP 가을 심포지엄

진승모·손희화 ‘동아ST 펠로우십상’

동아에스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2025 가을 심포지엄’에 후원사로 참여해 주제 발표, 우수한 인과학자 시상 및 글로벌 리크루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KASBP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신약 개발과 생명과학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국 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활동 중인 한인 과학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면역학에서의 치료 혁신: 신개념 전략과 소분자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동아에스티는 2023년부터 KASBP의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며, 한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 후원과 글로벌 제약·바이오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서 동아에스티 강종균 보스턴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혁신을 이끄는 힘: 동아에스티의 차세대 의약품 개발



동아에스티 강종균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지난 7~8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KASBP 가을 심포지엄’에서 차세대 의약품 개발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을 향한 여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동아STR&D 파이프라인 개발전략, ADC 및 AI 플랫폼 기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로 한인 과학자들의 위상을 높인 2명의 연구자들에게 ‘동아ST 펠로우십상’을 수여했다. 올해 수상자는 존스홉킨스대학교 진승모 박사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손희화 박사

로 선정됐다.

/이세경 기자 seillee@

롯데GRS, PCC 대회 성료… “컨세션 사업, 외연 확장”

‘하하호호덮밥’ 최우수상 차지

글로벌 종합 외식 기업 롯데GRS가 지난 5일 ‘2025 플레이팅 컬리너리 컴피티션(Ple:ating Culinary Competition)’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외식 프랜차이즈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컨세션 사업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12일 전했다.

‘플레이팅 컬리너리 컴피티션(PCC)’ 대회는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세번

째 진행된 컨세션부문의 사내 조리 경연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돈카츠 전문 컨세션 브랜드 ‘호호카츠’의 메뉴 베리에이션 확장을 위해 돼지고기가 토핑된 한국식 고기덮밥 ‘하하호호덮밥’을 선보인 2인조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 수상팀이 선보인 메뉴는 추후 정식 메뉴로 출시할 예정이며, 해외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롯데GRS 관계자는 “브랜드 다각화를

목적으로 올해 ‘무료쿠’, ‘두투머스 함박’, ‘마루가메 우동’, ‘복주걱’ 등 신규 외식 브랜드를 활발히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이트에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매장을 선보이며 외식 사업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롯데GRS의 컨세션 사업은 16년 강동경희대병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공항, 역사, 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브랜드 접점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샤롯데씨어터, 자막안경 상용화 서비스

내달 17일 도입… 홈페이지·현장 대여
국내 최초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안경을 상용화 서비스로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샤롯데씨어터가엑스퍼트아이엔씨와 함께 선보이는 자막안경은 뮤지컬 대사

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안경 렌즈 위에 투사하는 기술로, 시선 분산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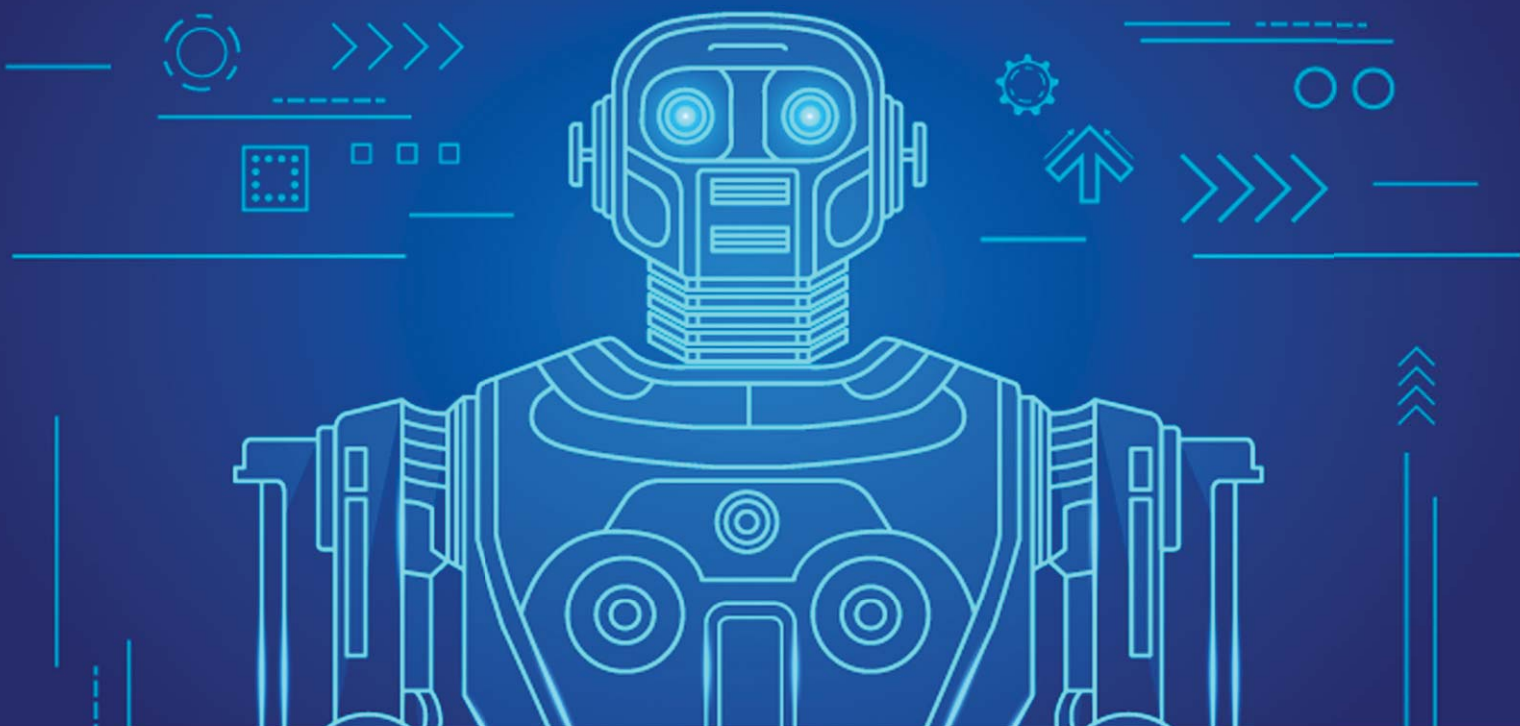
자막안경은 내달 17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강기부츠〉부터 도입되며 샤롯데씨어터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대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 일시 | 2025년 11월 19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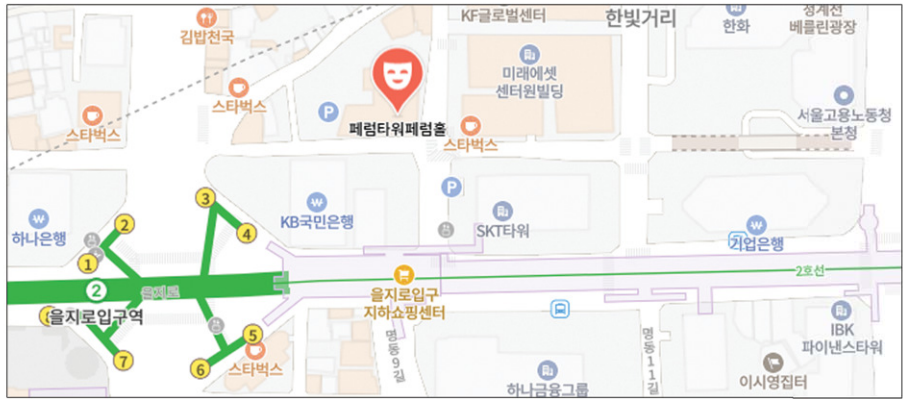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주 제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지형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오시는 길

페럼타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도보 3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조풍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필드 대표)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50	유태준 마음AI 대표 겸 한국피지컬AI협회장
강연	14:50~15:20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
	15:20~15:50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15:50~16:20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16:20~16:50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티맥스소프트, ‘오픈프레임’ 과기부 장관상 수상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는 최근 메인프레임 현대화 솔루션 ‘오픈프레임’으로 ‘2025 제11회 글로벌 상용 SW 명품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형용 티맥스소프트 대표(오른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CJ제일제당, 결식아동에 ‘셰프의 나눔 도시락’ 전달
CJ제일제당이 네이버 해피빈, 나눔문화예술협회, 영등포구청과 함께 ‘셰프의 나눔 도시락’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셰프의 나눔 도시락’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유명 셰프와 영양사가 직접 만든 건강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CJ제일제당이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출시한 ‘나눔햇반’과 ‘나눔스팸 에디션’의 판매 기부금으로 운영됐다.

/CJ제일제당



에이블리, 이커머스 첫 ‘T1’ 공식 스폰서십 계약
에이블리, 4910, 아무드(amood)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리드 파트너로 공식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스폰서십은 에이블리가 국내 스포츠 구단과 맺는 첫 파트너십이자, T1이 국내 이커머스 기업과 손잡은 최초 사례다. 에이블리 공식 후원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에이블리



쿠팡,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 장관 표창
쿠팡이 제22회 한국파렛트·컨테이너산업대상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쿠팡 로켓프레시 품질보증(QA)팀이 유닛로드시스템 컨테이너 부문에서 물류기기 표준화와 새벽배송 골드체인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사진은 김태희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 이선민 쿠팡 로켓프레시 QA 상무(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쿠팡



농협중앙회, ‘지속가능 농업·농촌’ 추진 의지
농협중앙회가 제30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12일 농협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1일 강원 원주 젊음의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범농협 임직원 모두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협

기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 실시

노사 마련 사회공헌 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학교에
차량 28대, 장학금 1500만원 지원

기아 노사가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및 장학금 기부에 나섰다.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는 1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관인 ‘Kia360’에서 ‘2025년 노사 합동 사랑나누기’ 기부 캠페인을 실시하고 차량 및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사랑나누기 캠페인’은 기아



임태일 기아 판매지회장(왼쪽부터), 문은주 기아 정비지회장, 기아 국내사업지원담당 최진기 전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류승용 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마련한 사회공헌 기금을 통해 사회복지 단체에게

차량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태광산업·대한화섬, 장관표창 등 대거수상

‘제39회 섬유의 날’ 기념식
자사 임직원 5명 수상

태광산업·대한화섬은 ‘제39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자사 임직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상을 대거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총 12명의 수상자 중 5명이 태광산업·대한화섬 소속 임직원이다. 섬유사업본부 아라미드공장 황오성 기장과 설비관리실 김대연 기장, 화섬총괄 설비관리담당 이재원 기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섬유사업본부 나일론공장 정일영 기장과 아크릴공장 신승원 기장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상을 받았다.

황오성 기장은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업 손실 시간을 5분의 1로 단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황오성(왼쪽부터), 정일영, 신승원 기장, 김대정 대한화섬 대표(태광산업 섬유사업본부장)이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섬유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태광산업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섬유의 날’은 국내 단일 산업 최초로 연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매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최 및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리는 기념식에서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 CNS, ‘IT 기술혁신’ 장관상 수상

에이전틱 AI 생태계 기반 마련 공로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인 LG CNS는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은 국내 IT서비스 산업 분야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LG CNS는 ▲정부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다수의 금융 AX 사업 수행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참여 성과와 에이전틱 AI 플랫폼·서비스인 ‘에이전틱웍스’와 ‘에이엑스핑크’를 통해 국내 산업에 에이전틱 AI 생태계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LG CNS는 380억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AI 디지털 플랫폼



LG CNS CTO 박상엽 상무(오른쪽)가 ‘2025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 CNS

폼 구축’ 사업과 300억원이 투입되는 외교부 ‘지능형 AI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수주했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LG CNS는 정부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LG AI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함께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종근당홀딩스,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유망 회화작가 발굴·후원
환자·가족에 공연 선보이기도

종근당홀딩스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메세나대상’에서 ‘문화공헌상’을 수상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메세나대상은 1999년부터 국내 기업 중 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헌신한 기업을 뽑아 매해 시상하는 행사다.

종근당홀딩스는 한국 화단을 이끌 어갈 유망 신진작가를 발굴·후원하고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종근당홀딩스는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운영하여 매년 유망 회화작가 3명을 선정해 3년간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2명의 작가를 배출했으며, 선정 작가들은 후원 마지막 해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최희남 대표(오른쪽)가 한국메세나대회 메세나대상 문화공헌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오페라 희망이야기’를 통해 대학병원과 소아병동을 찾아 클래식과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종근당홀딩스 최희남 대표는 “예술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며 “예술이 가진 공감과 회복의 에너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현대제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공식 홈페이지, 사용자 중심 설계

현대제철이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인 위기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대제철이 수상한 부문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해 직관적면서도 몰입감을 높여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제철 홈페이지는 ‘무거운 철강, 가벼운 경험’을 콘셉트로 현대제철의 70년 역사와 혁신, 미래 비전 등을 담아냈으며 철강산업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유혜온 기자 dhalehdhale@

인사

- ◆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패시브 운용부문장 최준영
-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

부음

- ▲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학장) 빙부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 서울성모병원장 레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과 경쟁력 제고 방안



하성욱

스마트카 'TALK'

자율주행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 안전 인프라 기반의 자율협력주행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산 차량 기술력은 Lv.2 주행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운전자 개입 없이 Lv.4이상의 기술제공을 목표로 치열하게 개발중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운행중인 로보택시는 Lv.4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없거나 사람이 조작하는 핸들·페달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Lv.4택시와 구분된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Lv.4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요원의 동승아래 시범운행을 하는 수준이다. 또 무선통신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5G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5GAA(SG Automotive Association)를 기반으로 BMW, 아우디 등 자동차회사와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 장비·단말

회사가 산업융합을 목표로 협업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관련 표준은 자율주행차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며 표준과 연관된 2차 특허가 상당수 잠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장거리 운전 환경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사업자, 그리고 GM·포드·테슬라 등 주요 제조사들의 Lv.4Maas 주력 전략 덕분에 Lv.3이상의 자율주행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부상해 2030년 경에는 신차 판매중 자율주행차(LV.2) 이상의 시장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한과 충칭, 베이징, 선전,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Lv.4) 택시 서비스 운행을 순차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등 향후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의 경우 유럽자동차 메이커가 Lv.3 이상 차량의 보급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당분간은 유럽이 시장을 견인할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북미에서도 보급이 꾸준히 진행돼

Lv.3 이상 차량 시장이 1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아우디가 Lv.3 차량을 2017년에 시장에 선보인 바 있으며, Lv.4 차량에 대해서도 폭스바겐그룹이나 BMW, 다임러, 볼보 등이 타 지역의 자동차 메이커에 앞서 제품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Lv.3 이상 차량의 시장은 당분간은 유럽이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유럽은 정부와 소비자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EV와 PHEV의 전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결합된 자율주행차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자금지원과 규제 프레임 워크,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가로 기술발전을 통한 안전확보가 일반 소비자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학·연·관의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3강에 오를 수 있는 법·제도 구축과 정부의 지원기반 아래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운영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부대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경쟁만 부추기나



기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방향을 두고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자칫하면 지방대간 ‘생존 경쟁’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학별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성과예산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최하등급 대학의 지원금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상위등급 대학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런 구조는 낫설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해왔다.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굵직한 정책마다 ‘성과 중심’ 원칙이 강조됐다. 그때마다 대학들은 본연의 교육혁신보다 서류 평가와 지표 관리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았다. 평가에서 밀린 대학은 재정난으로 휘청거렸고, 지역 간·규모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특히 교육성과는 본질적으로 단기간에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학생 역량, 연구의 깊이,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결과는 최소 3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1년 단위의 정량 평가로 차년도 예산을 배분한 바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혁신’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만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정된 예산을 놓고 경쟁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도 상징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방대 7개 탈락시키기’로 들린다.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산업·연구·일자리 격차로 무너진 지역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는 지방대 위기의 근본 해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지방대 육성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다.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교육부가 이번 사업에서 진짜 성과를 원한다면, ‘평가 지표’보다 ‘함께 가는 시스템’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9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48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60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 72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니 뜻밖의 좋은 일. 84년생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37년생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49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61년생 휴대전화 교환을 고려. 73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음주는 주의하자. 85년생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는 현실이지 전설이 아니다.



38년생 동분서주해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50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을. 62년생 물건은 세 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4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 86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39년생 삼재이니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51년생 정치적인 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63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75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87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겐 고통.



40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52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64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당하니. 76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88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데 있다.



41년생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53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해보라. 65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7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89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42년생 철쭉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54년생 매력적인 여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66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78년생 작은 손해에 신경 쓰기보다는. 90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생긴다.



43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55년생 기다리면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67년생 백만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79년생 소리대로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뒤야. 91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는데.



44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56년생 망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68년생 실수로 하지 않도록 점검. 80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92년생 말보다는 일을 진행하게 해나가는 것에 초점을.



45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57년생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69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1년생 신경질적 반응이 본인 일에 방해된다. 93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46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58년생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70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니 잔재주 부리지 마라. 82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94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47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59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발인 덕이 필요한 날. 71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기다려보라. 8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래보라. 95년생 대청소를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김상회의四季

풍수 한담 ②

풍수지리에 힘입어 도읍과 성읍지를 정한 근례는 이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였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실제적인 일이라고 믿는다. 가장 가까운 옛날에도 좋은 묘택지는 찾는 것은 필사적이였다. 조선 시대의 성균인 세종대왕릉도 처음엔 지금처럼 여주에 있지 않았다. 세종은 자식이 많았으나 장자 문종은 병약했고 차남인 수양대군은 야심으로 문종 사후에 왕위에 오른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 찬탈한 것만으로 부족해 단종을 죽게 한다. 세종의 다른 아들들 여섯 명은 수양대군에 의해 처형되였다. 후에 수양대군이었던 세조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예종은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조상의 무덤 때문이라 추정하고 세종의 무덤을 열기로 하였다.

이는 당대에도 음택 풍수에 대한 통념이 확고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선조의 묘를 연다는 것은 보통 명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열어본 결과 세종의 묘는 썩지 않은 시신과 관을 삼켜버린 물이 있었으니 왕가의 불행이 일어난 원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다. 예종은 세종대왕릉을 이장하기로 하며 명당을 물색한 결과 이미 당대의 명망 있는 가문이자 조정 대신이었던 이인선이 묻힌 묘자리였다. 예종의 압박으로 이인선 가문은 묘터를 이장할 수밖에 없었고, 세종대왕릉의 이전으로 조선왕조는 백 년 정도를 더 유지되었다는 설도 있다. 국토의 70%가 산이니 높은 험산을 제외하고 나면 적당한 높이의 배산임수 지형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성씨별로 각 종중과 문중마다 이미 차지한 곳을 제외하면 더더욱 그렇다.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화장문화가 일반화된 요즘은 매장도 어렵지만 한 상황이다. 음택 풍수가 힘을 발휘하기는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9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프랑스 양자기업 ‘관델라’ 유치… 800억 투자협약

지난 10월 파스칼 유치이어 두번째 관델라, 캐나다·독일 등 지사 운영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 공급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서울시가 지난 10월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 파스칼(Pasqal) 유치에 이어, 광자(Photon) 기술 기반의 프랑스 양자기업 관델라(Quandela)를 서울에 유치했다. 초고속 연산 등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컴퓨팅의 혁신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글로벌 양자 기업들이 잇따라 서울을 투자 거점으로 선택하면서 서울이 양자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투자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9시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관델라와 총 5700만 달러(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니콜로 소마스키(Niccolo So-



서울시청 본관에서 12일 열린 서울시 관델라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오른쪽)과 니콜로 소마스키 관델라 공동창립자이자 CEO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maschi) 관델라 CEO,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 김유석 관델라 한국지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관델라(Quandela)는 2017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니콜로 소마스키(Nicco-

lo Somaschi), 발레리안 지에즈(Valerian Giesz) 등 3명이 공동 설립한 광자(빛의 입자·Photon)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조전문 기업이다.

파리 남서부 마시(Massy)에 본사를 둔 관델라는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지사

를 운영하고, 전 세계 약 15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자컴퓨터 4대를 공급해 유럽고성능 컴퓨팅공동추진기구(EuroHPC)의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잇따른 프랑스 양자기업과의 협약을 계기로, 서울이 양자컴퓨팅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형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를 가한다. 시는 ▲산·학·연·관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핵심인재 양성 ▲양자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 지원 등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관델라 본사 및 한국지사와 연구개발 인프라·입지·인재 등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서울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평가받으며 연구개발센터 설립 투자 확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니콜로 소마스키(Niccolo Somaschi) 관델라 공동창립자이자 CEO는 “서울시와의 협력은 관델라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라며 “관델라는 혁신, 연구, 산업 응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양자 기술이 실제로 접근 가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서울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 인프라,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를 갖춘 도시로 이번 관델라의 서울 투자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서울의 양자 생태계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의 서울 투자를 더욱더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왕복 6차로 인천 ‘제3연륙교’ 내년 1월 개통

송도·영종·청라 잇는 4.68km 해상교량

내년 1월, 송도·영종·청라를 하나의 공항경제권으로 잇는 ‘제3연륙교(청라 하늘대교)’의 완공을 앞두고 이목을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 건설 중인 제3연륙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왕복 6차로, 길이 4.68km 규모의 이 해상교량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포함된 인천 최초의 ‘복합 교량형 공공시설’로, 기술·디자인·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인프라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과 혁신을 중시에 두었다. 초고강도 케이블과 고성능 콘크리트, 스마트톨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됐으며, 주탑은 인천의 상징색 ‘빨미도등대색’, 상판은 ‘첨단미래색’으로 마감됐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문(門)



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형식의 사장교 구조로, 포스코의 특수강재(HSB)가 적용돼 내구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주탑 상부 전망대는 세계 최고 높이인 해발 184.2m로 미국 페놈스콧 내로스 교량 전망대(128m)를 뛰어넘는다. 지난 10월 29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 인증을 받았으며, 기네스 북 등재도 추진 중이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국민대, 청소년 예체능 클래스 운영

18일까지 취약계층 40명 대상 미술·음악·체육·무용 4개분야

서울시가 예체능 계열에 관심과 재능이 있지만 높은 사교육비가 부담돼 진로 탐색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대학에서 전공 실습 수업을 받아보는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를 마련한다. 참여 학생들은 내년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국민대 캠퍼스에서 과정별 무료로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국민대와 협력해 겨울방학부터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40명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런 누리집에 공지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그동안 주

로 학습 지원에 집중해 온 서울런을 진로 탐색·역량 강화 분야까지 확장하는 ‘서울런 3.0’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클래스는 ▲미술(회화+디자인) ▲음악(바이올린·플루트 중 택1) ▲체육(골프·필라테스 중 택1) ▲무용(순수+실용),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국민대 교수와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며 3주 동안 6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전공 실습이 이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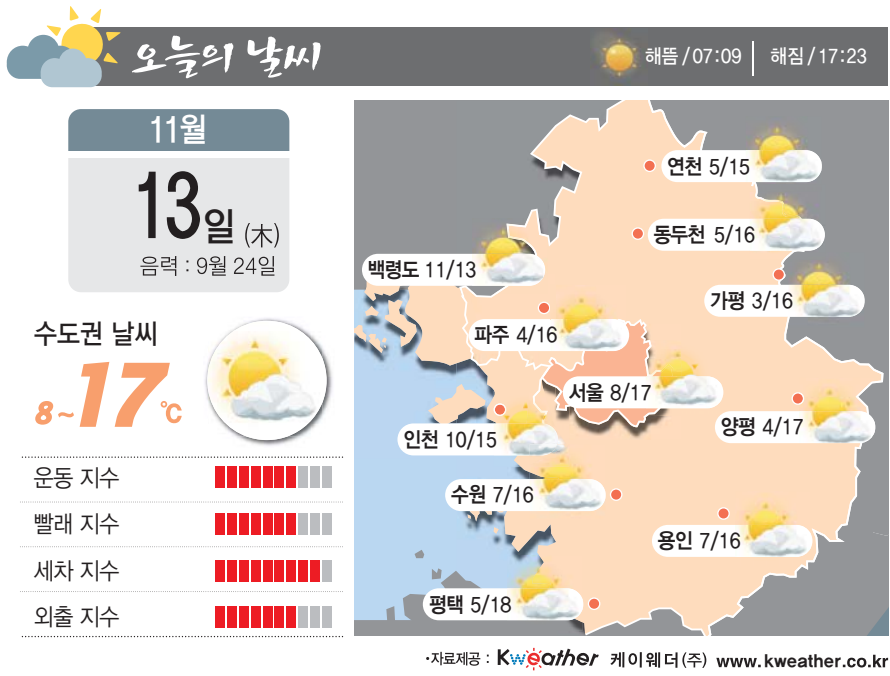
참여 학생들은 클래스에서 실습한 작품을 1월 말 열릴 폐회식에서 전시 또는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겨울방학 시범운영 성과와 참여 학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권역별 오프라인 캠퍼스 등을 활용,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정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는 실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시가 올해 9월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체능 분야 중 미술(24.7%), 체육(20.3%), 음악(19.2%) 순으로 클래스 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희망 진로, 지원동기,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여 명을 선발하고 12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예체능 클래스는 ‘서울런 3.0’ 비전에 따라 학습과 진로를 연계해 주고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 청소년의 재능과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서울런 학생들이 마음껏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보안감사 ‘최우수기관’

차기 보안감사 1년 유예 혜택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교육부 보안감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굳건한 보안 체계 구축과 함께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인원, 문서, 정보보안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교육청이 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반복해서 지적되는 취약분야와 자체 보안감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 분석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총무계획에 따른 전용 보안시설 구축·운영으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보안 체계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담당자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상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현

장 중심의 자체 컨설팅 등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연수를 추진해 보안실무자의 역량을 높였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 결과 최우수기관 1곳과 우수기관 4곳이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인 도교육청은 차기 보안감사 1년을 유예받으며, 관련 유공자에게는 표창이 수여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한 보안 수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더욱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메트로 한줄뉴스



▲“여행 돈 더 들겠네”...외국인 출국세·비자수수료 인상 검토 /사진 뉴시스
▲러, 외교부 대변인 등 일본인 30명 입국금지...대러 조치 보복

▲오바마, 한국전쟁 참전용사 비행기 깜짝 등장...“여러분 희생 기억”
▲‘가자 평화’ 약속하더니...“트럼프 행정부, 종전 가능성에 의구심”

▲‘트럼프 연설 짜깁기’ 사임 BBC 사장 “저널리즘 위해 싸워야”
▲후주 “中 해커, 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 침투 탐색...경제 마비 우려”



절임배추·생굴 등
할인행사 돌입
유통가 ‘김장대전’
L1



Life

커피업계
연말 맞아
시즌마케팅 절정
L2



식탁 위 안전, 한점 더 감싸다... 40년간 새로 쓴 생활의 기준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크린랩

가정용 랩은 주방 어디선가 늘 존재하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지금처럼 ‘안전’이라는 기준이 당연하게 요구되던 시절은 길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주방에서는 PVC 재질의 랩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됐다. 가소제나 VCM 잔존 물질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시장을 흔드는 도전이 시작됐다. 지금의 크린랩(Cleanlab)이 그 출발점이었다.

1984년 크린랩은 국내 최초로 무독성 PE 랩을 출시하며 식품포장재 시장의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창업주 전병수 회장은 그 누구보다 집요하게 “식탁 위에 올라가는 랩은 반드시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LLD-PE 소재를 과감하게 채택해 가정용 랩의 기준을 다시 세웠다. 심지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용 옥수수유를 사용하는 방식까지 연구하며 ‘안전 우선’이라는 철학을 기술로 구현했다.

소비자들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질감과 낮은 투명도 때문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크린랩은 투명도를 높이는 독자적인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와 마케팅을 동시에 밀어붙였다. 결국 이 선택은 식품위생 전문가 이철호 교수의 ‘식품위생 사건백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았다.

크린랩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PE 랩’이라는 소재 하



크린랩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용 옥수수유를 사용하는 방식까지 연구하며 ‘안전 우선’이라는 철학을 기술로 구현했다.

/크린랩

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브랜드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집요함으로 유명하다. 랩이 상자 밖으로 이탈하는 불편함을 막기 위해 측면 랩 홀더를 고안했고, 커팅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톱날을 적용했으며, 랩이 일정하게 잘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단 방향에 따라 필름 물성을 다르게 설계하는 데까지 몰입했다.

요리 과정에서의 짧은 순간조차 허투루 넘기지 않는 이러한 디테일이 소비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크린랩은 단순한 가정용 포장재가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을 재정의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결과적으로 2025년 10월 누적 판매량 1억5000만 개라는 기록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에 선보인 슬라이딩 크린랩은 이러한 브랜드 철학이 극대화된 대표 사례다. 기존 톱날 구조에서 발생하던 손 베임과 비뚤어진 절단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며, 랩 위를 가볍게 밀어주기만 하면 매끈하게 잘리

**1984년, 국내 최초 무독성 PE랩 출시
식용 옥수수유 사용해 안전성 강화
국내 식품 위생의 전환점으로 기록**

**생활 속 불편 발견엔 해결책 만들어낸
톱날 대신 슬라이딩으로 손베임 방지
불필요한 포장 줄여 친환경적 요소도**

**친환경 크린백, 사탕수수 PLA보틀 등
브랜드 철학 ‘환경·위생·편의’ 확장**

는 기술을 구현했다. 주방에서 아이와 요리를 함께하는 가정이나, 카페·식당 등에서 대량으로 랩을 사용하는 업장에서는 특히 환영받았고, 제품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스테디셀러로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 이후 크린랩은 ESG 흐름에 맞춰 제품 패키지를 다시 점검했다. 불필요한 비닐 외포장을 제거하고 슬라이딩 커터 구조를 패키지 내부로 옮기는 방식으로 개선해 환경성과 편의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크린랩의 존재감은 판매 실적이나 기술 혁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며 소비자의 언어 자체를 바꾼 브랜드라는 점이 훨씬 더 의미 깊다. 사람들은 랩을 찾을 때 ‘크린랩 어디 있어?’라고 묻고, 일회용 장갑을 떠올릴 때 ‘크린장갑’이라고 부르며, 지퍼백이나 물백을 포함한 각종 백류 제품을 ‘크린백’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칭한다.

특정 브랜드 이름이 곧 카테고리의 대명

사로 자리 잡는 현상은 단단한 신뢰와 장기간의 시장 지배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활 속 깊이 스며든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다.

2024년 크린랩은 사명까지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기존 ‘크린랩(Clean Wrap)’에서 ‘크린랩(Cleanlab)’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주방용 랩 중심 기업에서 생활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 기반 제품과 친환경 크린백·크린장갑 라인업, 100% 사탕수수 PLA 보틀 생수 ‘릴리프(Re:leaf)’ 등 새로운 제품군이 잇따라 등장하며, 소비자 일상 속에서 ‘환경성·위생성·편의성’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남자’와의 스폰서십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마케팅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오랜 스테디셀러 브랜드가 세대 전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방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가 제품 개발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기술을 진화시키고 디자인을 개선하며 시장을 움직였다. 작은 주방용 랩에서 시작된 이러한 집념이 수천만 가정의 일상 습관을 바꾸고, 1억5000만 개의 선택을 만들어낸 셈이다. 생활의 가장 사소한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 어떻게 메가히트 상품을 탄생시키는지, 크린랩은 그 답을 40년 넘게 증명해 온 브랜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크린랩은 손 베임 위험을 줄인 ‘슬라이딩 크린랩’ 등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제품들로 브랜드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



▲깊어지는 WBC 엔트리 고민...류지현 감독 “에드먼 수술 소식 9월에 접해”
▲‘축구스타’ 호날두 “2026년 월드컵이 나의 마지막 월드컵”
/사진 뉴시스

▲‘셋별’ 양민혁, 8개월 만에 태극마크...홍명보호 기동력 더한다
▲조코비치 “2년간 현실에 따귀 맞아...그래도 메이저 우승 가능하다 믿어”

▲트럼프 대통령 손녀, LPGA 투어 데뷔...“할아버지도 긴장하지 말라 조언”
▲탁구 간판 신유빈, WTT 왕중왕전 출격...단식·혼복식 도전장



LoL(롤) 월드 챔피언십 전무후무 3연속 우승
유일무이 통산 6회 우승

여섯 번째 별은 팬 여러분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T1은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또 한번 세계의 정상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열정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믿음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T1 왕조의 전설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SK텔레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SK telecom

